

2021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목차

I. 2021 문화정책 위원회 연혁 및 명단	07
1.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연혁	08
2. 2021 문화정책위원회 명단	10
II. 2021 문화정책위원회 분과별 활동 결과	11
1. 미래문화환경 준비 분과	12
2. 예술지원 정책 분과	24
3.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40
4.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64
III.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87
1. 추진 개요	88
2. 추진 결과	89
3. 주제발표	91
4. 토론문	98
IV. 2021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되돌아보기	111

I

2021 문화정책위원회 연혁 및 명단

1.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연혁
2. 2021 문화정책위원회 명단

I 2021 문화정책위원회 연혁 및 명단

1.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연혁

2019. 07. 16.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발족
 09. 03.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개소
 문화정책위원회 1차 전체 회의
 12. 20.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및 문화정책위원회 테이블 토크

2020. 04. 28. 1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05. 15. 1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05. 18. 1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5. 28. 1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06. 15. 2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6. 17. 2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06. 24. 2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07. 06. 1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07. 13. 3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7. 22. 3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07. 31. 2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08. 12. 3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09. 23. 2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0. 21. 3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0. 26.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 포럼(성평등문화증진분과)
 10. 28. 부산 문화정책 열린 포럼(정책위원회)
 11. 13. 4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1. 17. 3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12. 22. 4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2021. 02. 16. 1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04. 05. 1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4. 06. 1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2021. 04. 09. 1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04. 14. 1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04. 29. 2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5. 06. 2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05. 12. 2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05. 27. 3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6. 04. 2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06. 10. 3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06. 22. 2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06. 23. 3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06. 29. 4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7. 02. 3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07. 06. 4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07. 20. 5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8. 05. 5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08. 10. 4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08. 18. 6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09. 03. 4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09. 15. 5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09. 29. 3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10. 19. 6차 예술지원정책 분과 회의
 10. 20. 6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12. 02.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릴레이 토크
 12. 21. 5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12. 27. 2021년 지역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계)

2. 문화정책위원회 명단

분과명	구분	이름	소속
문화정책위원회	대표위원장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위원장	심문섭	예술은공유다 대표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위원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위원	이수진	경성대 글로벌학부 교수
	위원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위원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위원	정보경	부산시 청년문화 분과 부위원장
	위원	이상욱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	김원명	경성대 음악학과 교수
예술 지원 정책 분과	위원	강태훈	동의대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위원	이태상	신라대 창조공연예술학부 교수
	위원	진선미	연극인
	위원	송대영	소향시어터 총감독
	위원	손남훈	부산대 국문과 교수
	위원	조선령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위원	황지선	무대 디자이너
	위원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위원	송교성	플랜비 지식공유 실장
	위원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위원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위원	정경숙	완월동 기록연구소 소장
	위원	박지선	사회적기업 미디토리 이사
	위원	조현민	DRB 지속성장부부장
	위원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성평등 문화증진 분과	위원	변현숙	부산민주번호사모임 젠더위원장
	위원	박기영	성평등 예방교육 강사, 목사
	위원	박배일	독립영화협회 성평등 환경 지원
	위원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위원	하정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위원	주유신	영산대 웹툰영화학과 교수

II

2021 문화정책위원회 분과별 활동 결과

1. 미래문화환경 준비 분과
2. 예술지원 정책 분과
3.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4.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II 2021 문화정책위원회 분과별 활동 결과

1.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소속 위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심문섭	예술은공유다 대표
위원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위원	이상욱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	이수진	경성대 글로컬학부 교수
위원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위원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위원	정보경	부산시 청년문화분과 부위원장

2021년 주요 활동 내역

날짜	활동명	주요 내용
4. 5.	1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 부산이라는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기술, 예술가, 기업 간의 접점을 만드는 실천방안 고민 - 부산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체계, 마을과 기술, 청년 연계 등 폭넓은 대안 탐색
4. 29.	2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 청년, 로컬, 기술과 관련된 부산형 특화 사례 발굴 제안, 4차 산업 관련 데이터 기술 관련 논의 등 - 결과물 공표 방식 논의: SNS 채널 활용, 인포그래픽 제작 등. 단 시의성있는 주제만큼 신속한 공표 속도 방식 채택 필요
5. 27.	3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 청년, 기술, 로컬 키워드 중심으로 영국 프론트로우 (FrontRow), 부산 어댑터 플레이스 사례 공유 - 특정 장소 기억 축적으로 로컬의 힘을 길러, 대기업 위주의 몰개성화 문제에서 벗어날 필요성 논의
6. 29.	4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사례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트애펜테크(Art&Tech)'의 추진 과정 및 부산의 현황 - 디지털 시대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업무 환경 변화의 필요성 논의
7. 20.	5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 최종 결과물 도출 형태에 관한 논의 추진
8. 18.	6차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회의	- 주요 키워드 '청년, 기술, 로컬'과 관련하여, 최종 결과물 도출을 위한 위원별 세부주제 공유
12. 2.	미래문화분과 릴레이 토크	- 미래문화분과 연간 주요 키워드 '청년, 로컬, 기술'을 바탕으로 위원별 릴레이 발표 및 현장토론 진행, 해당 정보를 외부로 발신 및 가치 확산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활동 모습



미래문화 환경 준비분과 1차 회의



미래문화 환경 준비분과 2차 회의



미래문화 환경 준비분과 3차 회의



미래문화 환경 준비분과 4차 회의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릴레이 토크 현장1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릴레이 토크 현장2

‘미래문화 환경 준비 분과 릴레이 토크’ 위원별 발제 원고

디지털 환경에 따른 지역공연장의 변화와 역할 모색 공간을 비우고, 시간을 채우는 디지털극장

심문섭 예술은공유다 대표

극장(공연장)공간은 문화와 기술이 응집되어있는 공간이다. 그 중 문화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이다. 또한 테크놀로지(이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문화를 낳고, 문화는 기술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극장은 고대부터 동서양의 공연공간으로서 당대의 기술과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곳이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또 다른 극장의 역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극장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극장(劇場)을 ‘연극이나, 무용 따위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무대와 객석 등을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로 언급하고 있다. 영화 상영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어 사전은 극장을 ‘공연을 하는 건물이나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극장’을 그리스 문명부터 사용된 영어 단어 ‘theatre(theater)’로 보면 의미의 폭이 넓어진다. Dictionary.com이 설명하는 ‘theatre’의 의미 중 공연과 관련된 것은 ① 공연을 올리는 건물, 건물의 일부 또는 야외공간, ② 공연 관객, ③ 공연단체, ④ 예술 장르로서 공연예술, ⑤ 공연작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극장을 하나의 단순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관객, 극장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예술작품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극장 1100개 중 256개는 공공 문예회관으로 대표되는 극장이다. 그러나 공공극장의 경우 설립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시설을 넘어 확장된 개념의 극장으로서의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써 각기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가장 보통의 공연예술을 두루 수렴할 수 있는 기술과 공간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한, 노후화된 기술장치들로 인해 새로운 문화예술을 생산해 내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 늘 지적되어왔음에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의 가속 아래에서는 강제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 디지털 기술의 연결은 유통과 소통, 극 관람에 이르기까지 경계 없이 연결되어 극 관람을 위한 준비과정과 극 관람 이후의 누적된 개인의 관심 변화 등의 경험추구 경제로 이어져 있다는 점은 공간대관과 티켓판매에 의존한 기존의 공간기반의 극장시스템의 큰 변화를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공극장뿐 아니라 지역의 소극장은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 기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의 예술작업의 위축은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소극장의 위기로 직결된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디지털 시대의 공공극장 역할이다.

지역의 공공극장은 대관극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공연예술의 실험과 도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지역 예술가와 민간공연장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예술작업을 위한 기술 보유와 전문인력 확보, 예술가와 소통하고, 행동하는 과정과 결과물로서의 문화를 공공극장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민간 소극장은 지역 내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민들과 위의 경험 등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 내 미니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껏 대관과 티켓판매에 머물던 극장의 활용은 디지털 예술제작과 유통, 지역 커뮤니티 기능으로의 확장을 통해 차별성과 시설, 공간 중심의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애써 극장을 찾은 관객에게 기존의 경험과 융합된 디지털 경험을 함께 선사할 수 있도록 미션과 기획, 운영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가상의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게임 세계는 메타버스의 최전선에 나아가 있고, 페이스북은 기업명을 메타로 변경하였다. 가상공간에 머무는 경험의 개인화의 속도와 시간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곧 관객으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개인의 가상공간을 만들고 구입하고, 전시하고, 공간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바일 화면을 통한 일방적 소통과 미미한 댓글놀이에서 얼마 후면 가상세계에 본인을 얹고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과 시간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극장이 관객의 시간을 머물게 할 물리적 시설공간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하다. 더 대관과 티켓 판매 역할만으로 예술가와 관객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공공극장은 현실 공간을 넘어서는 가상공간에 과감히 도전해야 하며, 두 공간 사이를 오가는 예술가와 관객의 다리가 되어야 할 때이다.

디지털 시대에 극장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공간을 비우고 시간을 채우는 경험을 위한 극장으로의 존재 이유 찾기와 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프로시니엄 아치형의 일방형 수직적 극장 구조와 양방향의 수평적 디지털 공간과의 충돌은 오래전 이미 시작되었다. 현대 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프로시니엄 구조가 10여 년 전부터 블랙박스형의 수평적 극장으로 현대 예술가들과 관객들의 바람을 채워오고 있는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극장은 더 이상의 한 방향 소통에만 머물 수 없다. 또한, 특정 극장 공간을 벗어나 현실 세계 어딘가에서 극장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획과 예술, 기술진의 사고 확장을 필수적으로 동반하여야 하며 공공, 민간공연장들은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의 문화생산을 위한 플랫폼과 기술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베이비 부머 그리고 어수선한 퇴장

현재 많은 정책이 청년을 중심에 놓고 추진한다. 청년 주거, 청년 문화, 청년 일자리 등등. 하지만 부산에는 청년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베이비 부머들이 인생과 시대의 터닝포인트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1955년(만66세)부터 1963년(만58세)까지 태어난 사람이며, 약 700만 명이 넘고,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미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퇴직했으며, 내년 정도면 가장 막내인 63년생들도 내년이면 거의 퇴직을 마치게 된다. 베이비 부머들이 우리나라 60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베이비 부머는 어떤 세대인가? 비좁은 한반도의 인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밀도를 올린 대표적인 세대이다. 그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교사와 시설이 부족하여 콩나물 시루와 같은 교실에서 2부제 3부제로 공부하였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지옥을 만들었고, 결혼할 즈음에 주택이 부족하여 신도시를 만들게 하였다. 한편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주역으로 한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주역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식한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 대통령 직선제개헌을 이끌어낸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당시 대학생으로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와 제2의 인생 출발은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서 진행되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직장을 퇴직한 후에 시작하려고 했던 자영업 계획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조금 일찍 퇴직하여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구축해가던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포스트모던사회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베이비 부머들은 엄청난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는데, 또 다시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2. 문화와 기술에 익숙한 젊은 노인(YOLD: young old)의 등장

현재 베이비 부머들 중에는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약 30%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층에 있다는 뉴스가 자주 들린다. 하지만, 이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후에도 가장 건강한 신체, 가장 많은 경제적 자산, 그리고 가장 폭넓은 경험, 그리고 가장 긴 은퇴 후 삶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 700만여명의 은퇴 베이비 부머들을 거대한 소비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그들 보다 앞선 세대처럼 은퇴 후에 신문이나 보고, 등산이나 다니면서 소비활동으로 시간을 보낼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 전 세계를 가이드 없이 여행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 경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문화의 관점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보면, 한국전쟁 이후 안정된 사회에서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라디오, (컬러)TV, 영화, 잡지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그런 점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문화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 환경에서 성장한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이 사회에 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퍼스널 컴퓨터 등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처음으로 업무에 적용한 세대이며, 삐삐, 카폰, 휴대폰 등을 차례로 사용하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활용에도 비교적 익숙한 세대이다. 문화를 즐기면서 IT와 디지털기술에도 친근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와 제2의 인생 시작은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의 삶을 둘러싼 문화는 크게 바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이나,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은 많이 볼 수 있지만,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인 정책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이들은 국가나 도시가 따로 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 젊기 때문에 다른 도움에 의지하지 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각한 부산에서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은 어떤 문화적 존재가 될 것인가?

3. 문화적 주체로서 베이비 부머의 가능성: 문화소비를 넘어 문화생산으로

(1) 얻기된 문화적 욕망의 실현

베이비 부머들은 최근의 젊은 세대에 비해 자신의 개성이나 개인적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 온 마지막 세대일 것이다. 학창 시절이나 사회생활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가족이나 조직을 위한 일이 우선이 되었다. 베이비 부머에게 은퇴 후의 삶은 자신의 관심과 욕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행, 스포츠, 가드닝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다양한 취미활동 중에서도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영상 등 문화는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들이 학업과 직업을 위해 희생하거나 미루었던 대표적인 분야이다. 어쩌면,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은 대단히 광범위한 문화소비자 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문화생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2) 문화생산을 통한 사회적 의미의 발견

베이비 부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켜왔다는 사회적 자아의식이 상당히 강한 세대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은퇴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회사와 조직 내에서 역할을 인정받으면서 존재의 이유를 끊임 없이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 사회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짐에 따라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베이비 부머는 단순히 노쇠한 소비 집단이 아니라, 30여년 이상 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익혀 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등의 방식으로 베이비 부머들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3) 도시의 유희공간, 베이비 부머 문화의 새로운 플랫폼

수도권 집중, 탈산업화, 베이비 부머의 은퇴, 저출산 현상, 젊은 세대의 탈부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부산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희공간들이 나타나고 있다. 원도심은 베이비 부머들이 성장한 장소였으며, 그 곳의 유희공간들은 그들이 로컬 문화의 새로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술은 그들이 새로운 문화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적 수단이면서, 원도심과 유희공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적 확장장치가 될 수 있다. 베이비 부머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공간을 연결하고, 부산을 넘어 세계로 발신할 수 있는 기술, 문화, 공간의 플랫폼을 제공하자.

기술은 지역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상욱 동의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신문방송학 교수

AI, VR, AR, MR, Metaverse, NFT...

요즘 언론을 달구고 있는 기술용어들입니다. 그 용어들이 기술과학란 보다는 주식경제 관련 뉴스로 보도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의미하는 바들이 다르지만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던 인간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하더군요. 또한 모든 순간 가상공간과 연결되어 우리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생활,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일도 집에서, 사람과의 교류도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서 이루어진다는가, 인간의 노동이 기계에 의해서 도움 받는 정도가 아니라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운전도 시가 해주고 공부도 시가 해준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도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지고 머리에 뭐하나 뒤집어쓰고 혼자 희희낙락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결이 강해지고 즐길거리는 많아지는데 일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확실히 종식되었군요.

이런 초연결의 사회, 인간의 존재가 재정립되는 시기에 지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부산의 문화공간은 수도권의 문화권력과 싸워서 남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집 안에서 여행하고, 원하는 공연이든, 전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과연 부산의, 부산에, 부산을 위한 문화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방법론을 파괴하고, 변화시킨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전쟁, 약탈, 탈취의 형태로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요즘 논의되는 기술발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가상으로, 집적인 접촉을 비대면의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기에 더욱 위기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기술적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보이기에 더욱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기술의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뉴스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 기술의 발전 방향과 나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의 여러 신기술들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기존의 경제권을 독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옆에는 항상 작고, 끊임없는 작은 노력들이 더 성공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메타버스의 최고의 스타기업 중 하나인 게더타운은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조금이나마 만회해보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Google이라는 거대기업의 영상플랫폼인 YouTube에는 각자의 목소리를 대형 방송사나 언론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시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 코드는 오픈소스로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결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우리 주체로 설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흐름은 중심을 하나로 몰기보다는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이런 연결성의 시대에 결론 보다는 과정, 전체보다는 그를 구성하는 작은 개인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기존에는 소수가 독점하는 정보와 권력에 통제 받았지만 이제는 각 개인의 다양한 인지활동이 더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와 뼈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과학자들, 인문학자들은 함께 모여 인간의 본성을 다시 이야기 나누는 중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그 가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작용의 결과로 보았던 많은 개념들이 어찌하면 몸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녀가 놀이동산에서 짜릿한 놀이기구를 타면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지요. 몸이 내는 감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결성의 시대, VR과 메타버스의 삶이라도 우리는 피와 뼈로 이루어진 몸을 기반으로 하기에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상과학 영화처럼 몸을 바꾸고, 뇌를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계의 시작도 결국 부산이라는 땅과 바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초연결과 가상의 시대에 지역과 지역 문화는 더욱 더 중요한 개념이 되고 많은 영향력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엇을 답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가상의 누군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원천 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나이, 성별, 인종 등 생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한 개인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기반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며, 우리가 숨쉬온 공기와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부산, 아니 누군가의 그 지역은 초연결과 가상의 시대에 다시 주목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시대,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든, '메타-빠스'로 부르든 다시 우리로 서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부산 문화계의 미래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의 부산 문화 원형을 찾고 동시대를 돌아보는 문화적 성찰을 지속적으로 이어갑시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여러 문화 콘텐츠와 현재 부산을 구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원이며 정보입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문화적 장면을 발굴하고 소통하며 풍성하게 모이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문화 기술의 지역 내 확산과 공유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2년째 이어지는 강제적 비대면 사회는 잠시 우리에게 심판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마치고 다시 도약할 사회는 분명 더 활발해진 가상공간과 연결성의 사회일 것입니다. 이를 미리 지역의 문화적 주체에게 확산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사회를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하향방식의 교육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공동체 방식이 아닐까 미리 생각해 봅니다. 이런 두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은 우리의 문화적 기반이자 삶의 공간으로 오히려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술, 로컬에 대한 라뵘(Rapport)

이수진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청년에게 기술은 세상을 인지하고 자신이 뿌리내릴 로컬을 인지하는 틀을 제공한다.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진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에게 로컬은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기술을 갖추어 가는 청년에게 로컬은 구체적인 계획인 반면 그렇지 못한 청년에게 로컬은 추상적인 단어다.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으로 유턴하여 그곳에서 100년 가게를 준비하는 청년 1명과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전공하고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 6명을 만났다.

첫 번째 청년, 뿌리+가치+콘텐츠+시스템+연대

먼저, 100년 가게를 준비하는 청년을 만나보자. 부산에서 나서 자랐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마케팅 관련 일을 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선식과 참기름 장사를 하신다. 청년은 어머니의 막걸리 값을 벌어드린다는 이유로 참기름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소일거리를 만들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에게 부산이라는 로컬은 고향이자 부모님이다. 처음 두어병 팔리던 참기름이 점점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서울생활을 접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서울생활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부모님을 도와 돈을 더 벌겠다는 희망만으로 로컬로 유턴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모님이 시장에서 40여 년 동안 짜 온 참기름을 브랜드화하고 공정과정을 시스템화하여 100년 가게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구체화하려 다시 부산으로 온 것이다. 자신의 전공과 서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100년 가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실험해 간다. 참기름 만드는 부모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력과 마케팅력을 연마한다. 또한 참기름을 브랜드화하는 데 로컬을 중요한 요소로 만든다. 일상에서 늘 먹는 참기름을 다양하고 일정한 맛을 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로컬브랜드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환경을 생각해 에어포장지 대신 옛날 사람들이 참기름을 쌀 때 쓰던 신문지를 포장지로 만들었다. 포장지인 신문에 참기름 이야기, 시장 이야기, 동네 이야기, 부산이야기, 그림도 실었다. 판매량이 늘고 시스템을 갖추면서 청년 인력들도 고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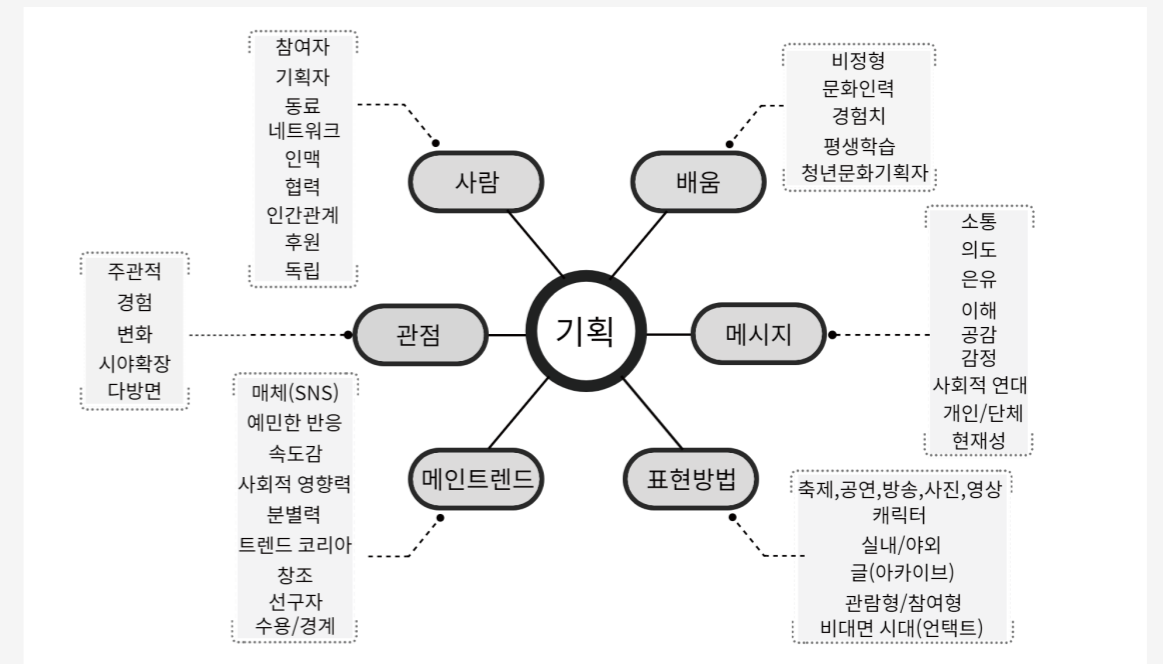
사람들은 일정한 맛을 내는 참기름, 로컬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담은 참기름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자신이 자란 로컬, 부모님의 삶이 있는 로컬, 청년이 살아가야 할 로컬은 청년의 기술을 통해, 로컬의 다른 기술들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가치 추구를 통해 거듭난다. 이제 청년은 움직이는 로컬이 되었다. 청년이 만든 메뉴얼은 로컬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이 된다.

두 번째 청년들, 연대감+기술+준비+지원

6명의 들과 실습수업을 했다. 자신의 관심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아이템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키워드를 다듬어 갔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화영역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 어떤 전략, 어떤 기술을 갖춰야 할까. 청년들은 고민이 많았다.

6명의 청년은 고독과 공유, 청년기획자의 글쓰기, 멀티페르소나와 N잡러, 자기PR, 쌍방향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정했다. 고독과 공유는 코로나블루로 인한 고독과 고립을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에 질문한다. 고독을 함께 고민할 수

는 없는가? 글쓰기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주제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중에 있다. 이들의 고민에서 로컬은 아직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로컬'은 자신이 진입해야 할 '문화의 장'이다. 로컬이라는 장소, 로컬의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에서 로컬을 생산하는 주체로 자신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문화영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콘텐츠' 등 로컬과 살아가는 청년들, 로컬을 새로이 생산하는 청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기획자들은 어떻게 로컬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사람이 곧 로컬이고, 로컬을 기술의 네트워크이다. 테크놀로지의 어원인 테크네로서 테크놀로지의 근본적인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을 이해해 보자.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네는 인간이 능동적인 활동으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이 라는 의미를 지녔다. 동네시장에서 부모님이 참기름을 만들고 팔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은 자녀세대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녀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부모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융합하여 로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든다. 참기름은 그렇게 청년의 융합된 기술을 담은 콘텐츠, 로컬이 된다. 그런 로컬에서 청년들의 일들이 생긴다. 로컬을 새롭게 구성하는 청년은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로컬과 융합하면서 로컬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로컬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아직 수동적이다. 그들은 로컬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을 때로는 자신이 닿아야 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로컬을 자신이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자신이 접촉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로컬과 어떻게 접촉해야 하고 결합해야 할지 그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다. 이 6명의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이 로컬에는 많을 것이다. 이런 친구들을 로컬과 접촉하고 로컬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든 마련되어야 한다.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술 활용의 가능성

장현정 (주)호밀밭 대표

1. 코로나19와 문화예술계의 변화

팬데믹 상황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온라인 전환이 강제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온라인 관련 기량도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정년이 다 된 노(老)교수들도 이제는 능숙하게 줌으로 강의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한 강의를 업로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문화예술계 상황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연장, 전시장, 축제 등 일상에서 벗어난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집합적 열정(뒤풀)'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그럼에도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은 이제 선택의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하고 출구를 찾아야 할 시기이다.

생각해보면 온라인에도 장점이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실존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부산만의 로컬리티를 더 다양하고 더 광범위하게 더 창의적으로 발산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피해 및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예술 활동 금지에 따른 공급 부문의 경제적 위기 상황의 대두이고, 둘째는 활동 탈출 구로서의 온라인 비대면 채널의 활용 증가 현상이며 그로 인한 구조적 변화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¹⁾

- 문화예술 공급자의 양극화 심화(브랜드 예술가 대 노브랜드 예술가)
-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의존도 증가와 디지털 문맹 예술가의 한계 상황
- 일반 대중의 공연예술 욕구 증가와 온라인 콘텐츠 소비 급증
- 문화예술 정책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 부각

2. '비대면' 사례와 향후 과제

현재 전국 각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예술인 지원,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지원,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참고할 사례와 가능성 및 과제를 아래에 요약했다. 끝으로, "아티스트의 셀프 브랜딩과 이들을 문화예술 일반 소비 대중을 연결해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스트럭처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인의 1인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의 확산도 단순히 문화예술 정책을 넘어 국가의 교육훈련 정책과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²⁾ 는 주장도 참고할 만하다.

1) 김효근, 2021, "눈물겨운 위버멘쉬의 노래: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도전과 응전", 지식의지평 31, 대우재단
2) 위 논문

| 사례 |

구분	예시
아카이빙	김해 '도시가 박물관' (온라인 아카이빙)
웹진(전자책, PDF 판매)	브런치, 밀리의 서재, 클래스101 등
로컬과 로컬의 연결	로컬 크리에이터
영상(유튜브, 웨비소드 등)	닷페이스
음성(오디오클립, 팟캐스트, 사운드아카이브 등)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등
포럼	웨비나
살롱(독서모임 등 취향 커뮤니티)	초개인화,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먼트"
여행(온라인 여행)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2021), 도시별 온라인 지도/QR코드 등
교육(문화예술교육)	천안문화재단 '2020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브레멘음악대 4.0'
금융	소셜펀딩(텀블벅, 와디즈 등), NFT(대체불가토큰), 기금 조성 및 다양한 핀테크
문화플랫폼	호두(구독경제플랫폼) - 정보가 모자라던 시대에서 과잉인 시대로 - 문화예술의 큐레이션 필요한 시대

| 가능성 |

- ① 시민들의 문화예술 장르 향유 기회 확대 및 일상화
- ② 시공간의 제약 극복
- ③ 문화예술의 산업화 가능성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 확장 기회
- ④ 더 과감한 융복합 문화예술 활동 확산(미디어의 융복합 및 확장)
ex. 연극배우의 발성과 감정은 오디오북 등과 연계 가능
- ⑤ 비용 절감과 빠른 실험 및 피드백 확인(정확하고 확실하게 피드백 파악 가능)
- ⑥ 기존의 진입장벽 허물 수 있음

| 과제 |

- ① 디지털 실무(제작) 뿐 아니라 기획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기술, 장비 등 지원
- ② 온라인 전환에 연동된 출연료, 사례비, 저작권 등 관리 체계
- ③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 ④ 금융, 기술, 관, 학계, 언론 등 경계를 허무는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
- ⑤ 선도 사례 마련

2. 예술지원 정책 분과

소속 위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김원명	경성대 음악학과 교수
위원	강태훈	동의대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위원	손남훈	부산대 국문과 교수
위원	송대영	소향시어터 총감독
위원	이태상	신라대 창조공연예술학부 교수
위원	조선령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위원	진선미	연극인
위원	황지선	무대 디자이너

2021년 주요 활동 내역

날짜	활동명	주요 내용
4. 6	1차 예술지원 정책 분과 회의	- 예술지원의 범위와 대상 확대를 통한 예술지원의 사각지대 조명, 민간기관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필요성 논의 - 청년 예술인 진입 및 대학 예술교육 위축, 부·울·경 문화정책 협력에 대한 조언 등
5. 6.	2차 예술지원 정책 분과 회의	- 청년예술인 대상 지속적 예술활동 환경 마련 : 창작실현 가능 금액 지원, 지원사업 요건 완화 등 논의 - 예술인으로서의 무대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제고 : 사회적 보상 체계 마련, 무대기술자격증 의무 채용 제도의 실효성 제기 - 민간 공연장 운영 관련 세제 혜택, 공연장 안전 매뉴얼 마련 등
6. 10.	3차 예술지원 정책 분과 회의	-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예술인 대상의 일반적 복지, 사회적 직업군으로 인정받기 위한 예술인 복지, 창작활동 환경 조성 차원의 복지로 구분 - 지원사업 추진 결과 자료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다음 사업 추진 시 환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7. 6.	4차 예술지원 정책 분과 회의	- 예술인 활동 공간, 작품 향유 공간으로써 민간공연장이 지닌 공공성에 대한 논의 및 지원 방안 토론 - 부산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구조 현황 공유 및 예비예술인, 청년예술인 대상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방안 논의
8. 5.	5차 예술지원 정책 분과 회의	- '예비예술인' 대상 지원 방안 논의 - 문화산업 분야 진입을 목표로 하는 예비예술인 대상의 실질적 인턴십 제도 도입을 위해 부산 내 문화산업체에 대한 조사, 현 인턴십 보완 필요사항 등에 관한 논의
10. 19.	6차 예술지원 정책 분과 회의	- 최종 논의 결과물 도출을 위한 위원별 원고 취합 방안 (주제, 세부내용 등) 논의 및 결정

예술지원 정책 분과 활동 현장



예술지원 정책 분과 1차 회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 2차 회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 3차 회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 4차 회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 5차 회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 6차 회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의 활동을 마치며 제안하는 부산 예술지원 정책

2021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예술지원정책분과의 활동

김원명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2021년 진행된 수차례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 회의 논의 결과, 향후 재단의 예술지원 업무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다음의 몇몇 사항들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청년 예술가 지원 강화 방안

1) 현실적 배경

청년 예술가들은 지역의 미래 예술생태계를 짊어지고 갈 중요한 존재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예술계가 이들의 중요성에 걸맞은 충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대학 교육의 현장을 지켜보면, 이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얼마간의 원치 않는 활동 공백기를 거친 후 예술 활동을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나마 일거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무대를 옮겨 어렵사리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을 속수무책 떠나보낸 지역 예술생태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선순환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가 아닐까.

사실 예술대 졸업생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는 졸업 직후의 활동 공백이다. 대학 졸업 후 외국 유학을 떠나든지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다수의 예술대 졸업생들은 사실상 '백수' 신세가 된다. 전공 관련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간간히 생겨도 그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라 직업이라 하기에는 턱없다. 이 공백 기간을 버텨내지 못하면 이들은 생존을 위해 눈물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근년 청년 실업 문제가 비단 예술대 졸업생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하지만 예술대 졸업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 예술대 졸업생들이 겪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예술대학 교육 내용에도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 재학 4년 동안 자신의 전공 실기 능력 강화에 모든 걸 바친다. 졸업할 때는 이 한 가지 능력을 빼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다(개인적으로 이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대학 4년 동안 이들은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도록 교육받는다. 이들이 자신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술실기 능력 활용하기를 포기하고, 먹고살기 위해 예술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현실은 어느 비 예술대 졸업생의 구직난과 유사하게 볼 수 없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는 졸업 직후이며, 이 시기에 활동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술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 이들을 돕는 길임과 동시에 지역 예술생태계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 구체적 방안 탐색

가.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예술대학 졸업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최소한의 소득과 더불어 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졸업생들이 연합한 '청년 오케스트라', '청년 합창단', '공모를 통한 청년 예술단체 활동 지원' 등 그 구체적 방안들은 얼마든지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지원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기존 지원 프로그램들 운영 방안에서 청년 예술가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업 참여 예술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졸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예술가로 정하도록 심사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프로슈머 집단과의 연계 방안

최근 수동적 예술 소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 소비를 하려는 프로슈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예술 소비 과정에서는 대개 전문 예술인의 개입과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들에게 반드시 높은 수준의 기성 예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예술대 졸업 수준의 청년 예술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프로슈머 활동에 청년 예술가를 연계시켜 생활예술을 증진함과 동시에 청년 예술가들에게 활동 기회와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도 일거양득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다양한 예술 관련 직업 정보 소개

한국의 예술대학 커리큘럼은 거의 예외 없이 기에 지향적이다. 이들이 졸업 후 전문 예술인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바다 거북이 부화하여 성체로 다시 산란장으로 회귀할 확률(1% 정도?)과 비슷하다. 이런 냉혹하고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화려한 순수예술가의 환상을 안고 불나방처럼 예술대로 진학하고, 4년 동안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는 교수자는 별로 없다. 교수자 자신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대학이 짧은 기간에 스스로 교육의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지원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2. 지원사업 심의 과정의 공정성 강화

1) 현실적 배경

지원사업 심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심의위원의 자질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심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적 측면 등 다른 요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심의위원의 자질 미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피심사자들은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원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심사위원의 자질 부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성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물론, 개인적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피심사자를 마치 교육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 지역 예술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 부재로 인해 편협한 시각을 가진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런 부류의 심사자들은 그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아 반복적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지금도 이런 심사자들을 걸러낼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염려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때면 재단 지원사업 관계자들은 심의위원 풀이 적어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종종 한다. 그러나 이 대답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자질이 부족한 심사자 몇몇을 걸러낸다고 해서 심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2) 구체적 방안 탐색

경험적으로 살피건대, 음악 한 분야에서 일어난 경우만 하더라도 사례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록 문제를 일으킨 심사자에게 당해 심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지는 않더라도, 향후 다시 심의를 맡기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수많은 애꿎은 지역 예술인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문화재단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진전된 한 걸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문제 발생 시 그 문제의 원인이 심사자에게 있는 경우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피드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수행할 부서에서 외부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자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한 개인에게 다소 불명예스러운 처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문 예술인으로서 또 심사자로서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공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사실은 엄연하다.

부산 문화예술 지원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강태훈 동의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부산의 시각예술 분야에서 작업하는 작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이곳의 예술가들과 후학들의 문화예술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낀 고충과 부산 예술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나의 짧은 식견과 능력이 미흡함에도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예술지원분과 정책 위원직을 2년간 수행해 왔다.

2021년 예술지원분과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성과 비현실성,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리고 공공성과 자유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

현재 부산은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인구 유출로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정부의 예술 대학 지원정책의 부재로 부산의 예술대학들도 축소되거나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의 지역이탈도 심한 편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업무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 최근 시민의 문화 향유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크게 변화가 없다. 최근 있었던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예술지원 사업으로 나타났다. 아마 예술인들의 피부로 외닿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지원은 문화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문화예술 사업에 있어서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의 토대를 이루는 구성원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 등한시 할 수 없는 일이다. 위원으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개선 요구를 이야기하였으나 부산을 제2의 문화 창조 도시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에서 책정한 예산의 범위의 한계라는 제도적인 문제에 매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불가능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의 젊은 시각 예술계의 요구들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 비해 적은 문화예술지원금도 더 증액되어야 하고 지원제도도 다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개인 분야는 타 시도보다 현저히 지원금액이 적고, 적은 비용에 비해 복잡한 정산과정을 가지고 있다. 지원 분야도 단순화되어 있는 장르에서도 다변화되어야 한다. 가시적 성과와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 사전연구, 리서치, 비물질적 결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전연구에서 결과발표 등 다년도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직업군으로 인정받기 위한 예술인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재단들도 시행하고 있는 작가 본인 아티스트 피(artist fee) 책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1년 단위의 사업 기간 외에도 장기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체분야는 매년 거의 80%를 협회나 단체들이 매년 하는 회원 정기전 형식의 비슷한 기획으로 가져가고 있다. 좋은 성과를 내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년도 지원과 우수한 장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일 년 단위를 넘어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지원사업 기간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예술가들이 국내외의 비상업적인, 예술적으로 중요한 대형전시 참여나 그로 인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로 할 때 심사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으면 한다.

부산에 기획자와 이론가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도 독립기획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없다. 개인 혹은 단체로만 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으로 했을 때는 기획한 전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역부족한 금액이고(일괄 소액 다건), 기획형 사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공간을 만들거나 단체를 설립하기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으로 지원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에 독립기획자로 활동하는 수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구들에 부산

문화재단도 조금씩 사업 조건들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시급하고 제도는 항상 느리다.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이다. 작업하면서 지속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작업할 공간이 없고 작품을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 경제력이 없는 작가일수록 더욱더 힘들다. 코로나 19 이후 베를린에서는 작가들의 작업실 비용을 지원했다. 작업실이 있어야 작품도 만들어지고 활동도 지속할 수 있다. 또 예술계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 정책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예술가들의 지원 이야기가 있었다. 보편적 복지가 없는 이곳에서는 긴급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예술가들은 예술가들로 존재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작업실 관련 지원 사업도 역시, 예비예술인이나 졸업생이 선정되어 입주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 지원도 있으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예비·청년 예술인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예술 활동 의사가 있는 이들 대상의 실질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즉,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점차 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업실 비용도 심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졌으면 한다.

또 하나의 공간의 문제는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느끼고 또 주위 예술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 부산은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보다 아직 문화예술 공간의 수도 현저히 작지만, 공간이 지향하는 특성의 다양성에서도 한참을 못 미친다. 부산에는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부산 시립 미술관과 부산 현대 미술관이 있지만, 그 전에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밑에서부터 실험적인 예술을 만들어 내고 기획하는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고 몇 개의 대안 공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간신히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동시대 실험적인 미술품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갤러리도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의 지원이나 관심을 받기도 아직 어려운 지역의 젊은 예비 예술인들이나 막 작업을 시작한 젊은 예술가들의 경우 이런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현재 시각예술 예비 예술인, 졸업생의 경우 작품을 발표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없으며 기회도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술관과 갤러리, 대안공간들 사이의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다. 굳이 시각적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공연이나 축제, 학술회의, 예술 교육 등 독일의 쿤스트할레와 같은 예술적 활동을 위한 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홍티 아트센터나 감만 문화 창고촌 그리고 작은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좀 더 문턱이 낮고 자율성을 가진 공간이 필요하다. 매해 자체 기획이나 시민큐레이터, 신진미술인(작가/기획자)을 대상으로 예산지원과 더불어 전시 공간을 지원하면서 1년 내내 전시를 진행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가와 기획자의 안정적인 발표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부산에는 없는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병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시민의 문화적 향유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부산에 생기는 유희공간, 폐교나 공장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개가 생겨났으면 한다.

문화정책에 있어서 유동성은 있어야 하겠지만 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의 정책 변화나 유행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보다 주체적으로 부산의 문화정책의 기초를 세우고 그것에 맞춰 지속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간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정책의 문제는 비단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거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이 왜 지속해서 발생하는지의 문제는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부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부산의 문화정책이 다른 타 시도보다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지역분권의 중심에 서자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지원의 행정 간소화와 문학 분야 지원 정책

손남훈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문학 부문 지원금 관련 행정 간소화 조치의 필요성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학 부문에서의 지원금 관련, 행정 간소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또한 2016년에 지원금을 받아 비평집을 발간하기도 했고, 부산 지역에서 매체 발간에 관여하여 매년 지원금을 신청, 발간비로 사용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부산문화재단 지원금 신청과 수령, 집행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신청 서류의 간소화 필요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지원금 신청과 교부 신청 서류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 교부 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부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 때와 달라진 부분만 쓰도록 하고 그외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 교부 신청 시에 그와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 시에도 지원금을 통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만 쓰도록 하고 애초의 취지나 목적 등은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신청서나 결과 보고서를 간략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 부문의 경우, 지원금 신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학인들 대부분이 행정 업무나 서류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문학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은행 계좌 개설 관련, 은행 직원의 업무 교육 필요

덧붙여, 지원금 수령과 교부 과정에서 부산은행에 들러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해당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몇 차례씩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 계좌 개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창구 직원도 해당 내용을 잘 몰라 계좌 개설 시 필요 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지원금 수령과 집행을 해야 할 문학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동분서주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몇 차례씩 은행을 방문하여 귀중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산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시, 해당 업무에 대한 은행 창구 직원의 사전 업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계좌 개설과 지원금 수령 등의 절차가 용이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발간 지원금이 아닌 창작 지원금으로의 지원금 설계 정책 변경 필요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문학 부문 한정) 사실상 작품집이나 비평집 발간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인들이 돈이 없어서 작품집이나 비평집을 발간하는 것이 아님에도, 현재 문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상 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부산문화재단 지원금이 '창작'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발간'을 위한 지원금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작 지원금은 말 그대로 문인

들의 창작을 위해 사용되는 지원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간 형태로 설계된 현행 지원금 지원 방식은 사실상 문인들이 아닌, 출판사를 위한 지원금이 되고 맙니다. 창작 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걸맞게 창작을 위한 지원금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 보고서와 정산을 간소화하여 발간된 결과물인 작품집이나 비평집을 제출하는 것으로만 결과보고서와 정산을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경우,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SBN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문인 개인이 소유한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인 개인이 작품을 출간하는 경우, 출판사와 관련될 때 두 가지 출간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문인 개인의 출판비를 통해 발간되는 사비 출판이고, 또 하나는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 출판되는(따라서 문인 개인의 사비가 일절 들어가지 않는) 기획 출판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산문화재단의 현행 창작 지원 시스템은 문인 개인의 '사비 출판'(물론 지원금을 받는 것 이기는 하지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 개인의 문학적 역량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사비 출판이 될 수도, 기획 출판이 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현행 창작 지원금이 출판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비 출판을 종용하는 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판사에 의한 기획 출판에 있어서도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지원금 사용 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엄격한 정산이 요구되는 출판사의 입장에서 오히려 출판비로 지원되는 현행 부산문화재단 지원금의 성격이 되레 출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거나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이 사실은 작년과 올해, 실제 신청금을 수령한 주위 문인들의 경험을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작 지원금을 상급의 성격으로 지원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 없이 정식 발간된 작품집을 간략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 출판이나 지원금에 의한 출판이나에 따라 지원금 사용 성격이나 정산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예술지원정책 회의의 주요 이슈와 문학 분야 제언 사항

1) 코로나 19와 문화 지원 정책

올해 예술지원정책분과의 가장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문화 지원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에 집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몸담고 있는 문학 부문과 달리, 연극을 비롯한 공연 예술, 전시 분야 예술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중 관객과의 접촉 없이 예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예술 분야가 대중적 접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를 논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는, 부산 지역의 문화 예술의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문학 부문의 경우에도 작품 발간을 통해 대중 독자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행사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참여 독자들의 수가 급감하는 등의 문제도 겪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온라인 독자 참여를 증용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매우 명백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공연이나 전시 분야 예술의 경우 더 큰 실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논의에서 예술 전공 학생들(예비 예술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도 작년과 올해의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주로 듣는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의 엄정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앞으로도 예술지원 정책 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깊이 숙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 예술인을 위한 지원 부분에서는, 현재 각 분야 예술계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야마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부산 지역 예비 문인들을 위한 '창작 학교' 과정 개설 필요

문학 분야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술대나 미술대학처럼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대학 내 체제가 현재 부산 지역 대학 가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 예술인으로 볼 것인가는 다른 예술 분야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 중 문학 창작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에 따른 문학 창작 방법론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실제 부산 지역 대학에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창작 수업 커리큘럼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부산 지역 내 문예창작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문학 창작 욕구를 충족시켜 이들을 지역의 문학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창작 수업이나 서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대학의 특정 학과, 이를테면 국어국문학과나 한국어문학과 등에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법 통과 이후 전문 작가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강사로 채용되어 3년 동안 임기와 수업이 보장되는 강의를 개설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 지역 예비 문인들을 위한 창작 관련 과정이 대학 바깥에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 강사로는 부산작가회의나 부산문인협회 혹은 부산소설가협회 등의 소속 시인이나 소설가, 평론가들을 채용하면 충분할 것이고 대학이나 학과의 협조를 얻어 창작에 뜻 있는 청년 문사들에게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문화재단이 부산 지역 대학과 협조하여 '창작학교'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면 부산 지역 문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휴공간 활용과 부산시 16개구군의 문화재단과 문화회관 건립 절실

이태상 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교수

부산시가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 하고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몇 자 올립니다. 다음 아님 시민의 문화주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한 제언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예술 중심지, 문화예술을 통한 여가활동과 초고령 시대로 진입한 부산시의 고령인구변화의 대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제공하여 그것을 경험하고 감상하며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에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이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그마저도 시설과 위치의 아쉬움이 많아 그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건립이 남아 있지만 그보다 시민 밀착형 공연예술센터(소극장)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막대한 건축비로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유지비용과 콘텐츠는 어떻게 채울 것이냐입니다.

부산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고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장 형태의 공연예술콘텐츠 센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직되어있는 문턱을 낮추고 문화의 친근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 입니다. 또 부산시는 턱없이 부족한 공연장의 시설이 전부이며 계획된 문화예술정책이 지지부진하여 날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이 확충되지 않고 과시성(전시성) 행정으로만 보일 수 있는 정책은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 입니다.

이의 대안으로 유휴공간 즉, 폐교 또는 폐공장 등 예정되어 있는 몇 학교의 시설 및 오래되고 리노베이션이 불가피한 체육 시설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국제)공연예술콘텐츠센터(소극장포함)로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교는 도심중앙에 근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좋아 접근성이 용이하고 증진된 건립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단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보다 해당 학교 부지에 공연예술콘텐츠센터(소극장포함)건립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 8개 자치구, 부산시는 2곳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기존의 구청 문화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의지를 가져야 지자체 공공사업에 적극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연예술콘텐츠센터(소극장포함)를 건립할 경우 근방에 위치한 공원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면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문화예술콘텐츠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휴공간을 통한 공연예술콘텐츠센터 건립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기반이자 때로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생각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부산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주권 보장을 위한 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민간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필요성에 관하여

송대영 소향씨어터 총감독

1. 부산광역시가 민간 공연장에 대한 감면조례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서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입 타당성 검토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이하 연구 보고서)라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부산시 문화예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공연시설이 그 직접적인 지원대상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등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민간공연장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현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은 문화시설로 구분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방세 감면특례 대상으로서 지원 중인 상태이나, 민간 공연장은 그러지 못하다. 지역 내 민간공연장이 양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민간공연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므로, 민간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함에 있어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말한 실제 공연장 운영비용 감소와 직결된 재산세의 감면이 취득세보다 훨씬 효과가 크나 부산의 경우 서울과 달리 재산세가 시세가 아닌 구세로 되어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접근을 제언하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특례>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감면세목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감면율	100%	100%	100%
감면기간	2021. 12. 31.까지	2021. 12. 31.까지	2021. 12. 31.까지

※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례가 정비, 운영 중임
 ※ 감면제도 운용기간 : 2008년~2021년(일몰연장 여부에 따라 운용기간 연장)

2. 연구 보고서 내 '정책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소견

연구 보고서 29쪽에 따르면, “정책성 분석 항목 중 정책대상의 적절성에서 해당 감면조례안은 민간 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정책으로서 감면혜택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민간 공연장들이므로 현재의 정책대상은 적절하다고 평가되나, 언제든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형 민간 공연장이 정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향후의 적절성은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대형 민간 공연장을 단순히 규모가 커서 고수익이 창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대형 공연장은 중·소규모 공연장에 비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축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며, 공연장 운영의 특성상 수익 창출보다는 적자운영이 대부분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이 정책의 공익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목표 삼고 있다고 평가한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지원대상인 소극장에서는 시설의 특성상 클래식 음악,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예술을 접하기 어렵고, 연극이라는 한 가지 장르에 치우쳐 있다. 이에 반해 대형 공연장에서는 오페라, 합창, 뮤지컬, 대중공연, 연극등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형공연장이 단순히 객석수가 많아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1,500석이 넘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부산 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10~15%) 보면 이치에 맞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마무리 글

공연장에 작품 하나가 들어서면 관련 스태프, 퍼포머가 100~200명 정도 참여하는 편이다. 즉,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술인 지원과 맞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좋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로도 공공극장과 민간극장 모두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시 무조건적인 공연장 운영 중단은 관련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하지만, 결국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것이며 예술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 공간 개관과 지원은 공연장 수입 활동을 지속시키고, 이는 곧 예술인 수입으로도 이어져 자연스러운 예술 생태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지방세연구원(2020),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입 타당성 검토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KLIF REPORT Vol.97, 2쪽

2021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예술지원정책분과 활동을 마치며

조선령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인과관계에 근거한 효율성을 추구하고 계량화 가능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일반 시민사회의 제도와 정책 속에 예술과 예술가라는 항목을 넣으면 온전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술지원'이라는 개념이 항상 양날의 검을 갖는 것은 어쩌면 이런 근원적 불일치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 '서울이 아닌'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지방 자치제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공공 예술 공간과 제도가 적지 않게 생겼지만, 예술계의 규모나 활동성을 놓고 볼 때 서울/비서울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예술지원정책분과의 활동이 중요하면서도 쉽게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의제들로 포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런 이중 삼중의 무게감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고 더 심화된 정책연구가 필요한 사안들이었으나, 쉽게 답을 도출하거나 당장 구체적 제도로 실현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했다.

연구, 교육, 기획, 비평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술정책을 전공하거나 정책을 입안 혹은 집행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해본 적이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예술지원정책분과의 논의를 따라가는 일 자체가 우선 과제였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게는 되었지만, 개인적 의견을 내놓는 형태를 넘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의제를 도출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태로 세우는 일은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장르, 상황, 제도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꼽히는 문제들을 접하면서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에서 나온 의제들 중에서 조금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으로 올해를 마감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회의에서도 중요 의제로 논의되었던 '예비 예술인 지원' 문제이다. 예비 예술인이라면 우선적으로 창작자를 떠올리게 되지만, 창작자만이 아니라 기획, 정책, 기술, 비평,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이 졸업 후 예술인으로 계속 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예비 예술인들은 아직 경력이 없는데 각종 지원 정책이나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이미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다. 경력을 쌓아야 경력이 생기는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경력자를 원하는 악순환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예술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술인으로 활동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로 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 예술인들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초래된다. 회의에서도 내놓았던 제안이지만, '첫 번째' 활동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이미 그와 유사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장르와 유형에 맞는 더 세분화된 지원책이 마련되면 예비 예술인들이 예술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예비 예술인'이라는 범주를 폭넓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보통 예비 예술인이라는 이름을 대학 졸업생들과 연관시키지만, 학교와 무관하게 새롭게 예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나이 들어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도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가장 철저한 편에 속할 한국의 '나이 제한'은 더 세련된 사회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부분이다. 열아홉 살에 인생이 결정되어 '두 번째 기회'가 없는 한국에서 예술계에서라도 나이나 학력을 문제 삼지 않는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 물론 지금도 그런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형식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더 미묘하고 더 어려운 문제인데, 서두에서 언급한 '양날의 검'에 대한 부분이다.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서 응모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항상 있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공공 홍보 분야가 발달하여 각종 기금 사업에 매우 친절한 설명회가 열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계정 등도 잘 만들어져 있다. 또한 한국은 개인 예술인들에 대한 기업이나 사적 영역의 후원이 미미한 반면, 공적 영역이 비중이 큰 나라에 속한다(어느 나라와 비교하는가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어떤 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단순히 지원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 예를 들어, '재대로 일을 해보기엔' 부족한 지원 액수라던가, 정산의 복잡함이라던가, 심사위원들의 자질 문제라던가 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정산 없이 상금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고 있다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세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 방식 등 회의에서도 다양한 대안적 지원책들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개선은 정책 뒤에 전제된 태도 내지 방향의 전환과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다. 공적 영역의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모든 절차에 '투명성'이 요구되고 그 결과 산술적 평균이 중심부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역동성과 자유는 역설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지원 정책 앞에 놓인 '검의 양날'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부산문화재단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원 정책이 민주주의와 관료주의 사이에서 항상 외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는 딜레마를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스태프의 위치와 인식에 대한 문제

황지선 무대 디자이너

1. 스태프의 현실

스태프는 조명, 무대, 영상, 음향 등 출연진 및 연출진을 제외한 공연관계자들을 일컫는 포괄적인 명칭이다. 또한 기술파트와 창작파트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창작파트에 속하는 분야별 디자이너까지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다.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작업 일선에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한 혼선들이 생기기도 하고 기술파트의 스태프들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작과 기술을 같은 선상에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는 인식을 하나 공연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예술의 영역, 창작의 영역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이 일선에서의 상황이다. 함께 하는 작업자들 속에서도 그러한 인식들이 있다 보니 스태프들은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허다하다.

노동과 창작, 개발연구, 안전성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표현되어 질 수 있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공연기술파트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시간과 자본, 인건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부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연작품을 함께 만드는 한 분야의 작업자라기보다 부속적인 파트라는 인식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2. 스태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1) 스태프의 지원정책

공연예술은 종합예술로서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하나의 작품이 되기는 힘들다고 하나, 공연기술영역의 단독적인 지원정책이 아쉬울 따름이다.

공연기술파트에 대해 지방의 공연단체의 지출비중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연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시스템의 확충이 개별 파트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부산의 상황은 다른 지방에 비해 여러 파트의 스태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규모도 큰 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개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부산의 공연의 질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공연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지기를 제안해 본다. 예를 들어 한 가지 기술적 주제를 가지고 연구과정과 실제 결과물을 그 다음해에 공연단체와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희곡작품이 정해지고 창의적인 분야별 디자인을 공모하고 공연단체와의 매칭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공연단체 위주의 지원에서 공연을 이루는 개별 분야별 지원정책도 있게 되면 다양한 공연 개별 분야가 활성화되고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스태프의 인재 양성

지방은 스태프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 분야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접근이 힘들 수 있다. 연극학과 등에서는 그나마 스태프 관련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졸업작품이나 학기말작품 발표에 경험해보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세부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 방안으로 멘토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야별 현직업자들과 청년들의 1대1 멘토링 방식을 통해 현장을 알아갈 수 있고 작업 과정과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부산문화재단 내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여 마지막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좋은 작업물이 나오게 되면 공연단체와 매칭 및 공연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면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3) 신진공연단체와 스태프의 교류

현장에서 신진공연단체와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들은 공연자로서 배우, 무용수, 연주자등 무대 위에 실연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이 올라갈 때 실제 무대 위에 여러 가지 스태프의 역할과 무대적 상황을 몰라 힘든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신진 공연단체, 신진 연출진, 신진 출연진들에게 <스태프 사용 설명서(친근성이 있고 유희적인 언어로 만든 가안)> 등을 교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스태프들의 역할, 공연의 전체적인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다면 신진 공연자들에게 공연을 계획할 때 도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4) 예술지원분과의 분야별 회의

예술지원 정책 분과에서 각 예술분야별 전문가분들과의 회의방식으로 이루어져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부분에 도움이 되고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야를 깊게 문제점들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각 예술 분야별로 개별 토론회 및 회의시간들을 가지면 심도있게 여러 가지 개별 분야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마무리 글

무대디자이너로서 20년 정도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분야를 시작하기까지의 어려움, 그리고 영위하기까지의 어려움, 주변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겪기에 예술분과회의를 통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공유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함을 가진다. 부산문화재단과 예술분과회의를 통해 함께 하는 스태프들과 이 분야를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과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3.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소속 위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송교성	플랜비 지식공유 실장
위원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일 원장
위원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위원	정경숙	완월동 기록연구소 소장
위원	박지선	사회적기업 미디토리 이사
위원	조현민	DRB 지속성장부부장

2021년 주요 활동 내역

날짜	활동명	주요 내용
4. 14.	1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 ESG경영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기업 환경과 예술의 연계 방법 모색 - 비대면 일상화 사회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방법 - 완월동과 같은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술의 효과적 역할 정리하여 문화정책 확산 필요
5. 12.	2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 기존의 지표조사 데이터 등을 반영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논의 필요 - ESG경영 등 기업-기관-문화예술인력 간 연결고리 마련으로 예술의 가치 확산 - 실천과제로 포럼 개최, 미디어 활용 정보 전달, 현장 문화기획자 참여 유도 프로그램 마련 등 논의
6. 23.	3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 부산지역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례(완월동, 미디어로 행동하라, 우리동네 악기공유센터, 아젠다 메이커스 등) 공유 -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문화예술 사례의 세부 프로세스에 주목하여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모색
8. 10.	4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 위원 활동 분야별 부산시 내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례 (완월동 '언니야 놀자', 갯강이마을, 아젠다 메이커스, 명도가 간다 등) 관련 세부 추진 과정 및 시사점 발표
9. 15.	5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 부산 기업 DRB의 ESG 경영과 연계한 예술의 가치 확산 사례 발표 및 공유
10. 20.	6차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회의	- 최종 논의 결과물 도출을 위한 위원별 원고 취합 방안 (주제, 세부내용 등) 논의 및 결정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활동 모습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1차 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2차 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3차 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4차 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5차 회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6차 회의

부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사례

영도 갯강이마을

송교성 문화예술 플랜비 지식공유실장

1.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집중했던 문제의식

문화예술 플랜비(이하 플랜비)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문화예술법인이다. 플랜비의 설립목적 중에는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콘텐츠의 개발'이 있다. 그래서 부산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상과 실험을 통해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급격한 도시발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진 도시이다. 특히 대규모 철거와 재개발방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공간이 가진 역사성과 장소성을 파괴하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기반, 공동체의 연속성을 허물어뜨려왔다. 그래서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자산을 문화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항구도시의 굴곡진 역사와 자취가 서린 영도 대평동 '갯강이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장소 만들기, 도시마케팅,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단발적인 문화행사나, 벽화와 조각작품 등의 조형물 설치 정도에 그쳐서 여러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문화적 도시재생의 의미와 가능성을 '장소와 시간', '사람과 관계', 그리고 '문화예술의 힘과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사업단의 총감독이자, 현 플랜비의 이승욱 대표는 다음과 같이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다.

“갯강이예술마을은 ‘오래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시도이다. ‘오래된 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 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과 문화에 연관된 것이다. ... 갯강이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을 통해 이 지역의 역사와 삶을 기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문화예술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단순히 장식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소통이라는 문화예술이 지닌 본원적 힘과 가치일 것이다.”(갯강이예술마을사업단, 『갯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 생활편』, 호밀밭, 2017, 7-10p)

4) 갯강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 발간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 참고하였음.

2. 문제의식에 대한 문화적 해결 방법

<대평동 전경>



※갯강이예술마을 사업단 제공

갯강이예술마을 사업은 <해양, 재생, 커뮤니티 중심의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 재창조>를 비전으로 영도의 관문 지역인 대평동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해양문화수도라는 부산의 특색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2015년 부산시의 예술상상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플랜비와 대평동마을회, 영도구, 영도문화원이 함께 갯강이예술마을 사업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가 세워졌던 영도 대평동(현 남항동)은 근대조선산업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근대 산업유산과 생활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하여 갯강이마을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항구도시 부산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과 독특한 산업현장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대 수리조선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양도시, 항구도시의 원형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화예술로 지역을 재생한다는 것은 지역의 이야기와 사람들, 일상과 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활기와 자부심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갯강이예술마을 사업의 물리적 공간 조성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이나 장소를 바탕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복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예술작품들도 이질적인 외부의 것을 장식하는 형태가 아닌 주민들과 지속해서 대화하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의자나 조명 등 기능적인 형태로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창작되었다. 예컨대, 임대사업 등으로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었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던 마을회관을 마을다방과 마을박물관의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 외부 방문객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현재도 마을다방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영도 도선의 역사가 있던 선착장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터미널 겸 안내센터를 짓고 예술가의 작업으로 독특한 외관을 갖춘 선박을 이용한 선박 체험관과 남항 일대를 둘러보는 유람선 운항을 시작하였다. 갯강이 유람선은 영도대교부터 자갈치와 갯강이예술마을 일대를 둘러보며 항구도시 부산의 독특한 정취를 체험할 수 있는 해상투어다. 현재도 주민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구름 모양의 가로등을 곳곳에 설치했고, 버스정류장이나 골목길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아트벤치와 대형 인물화>



※갯강이예술마을 사업단 제공

벤치 작품을 설치했는데 마을에 버려진 자개농과 닳을 직접 활용하거나 익숙한 마을의 정경을 새겨 놓았다. 공장의 외벽에는 사람의 표정을 닮은 선박의 외관을 그리거나 강강이마을의 친숙한 풍경과 색채를 담은 페인팅 작업을 진행했다. 마을 입구 아파트 외벽에는 '강강이 아지매'의 얼굴을 표상하는 대형 인물화를 그려, 콘크리트 벽을 넘어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부둣가 축대에는 바람이나 조수간만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키네틱아트 작품을 설치했는데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뿐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추락 경고판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예술작품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작, 설치과정까지 지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작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적 자산들을 재인식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을 성찰하며 나아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하였다.

3. 활동을 위해 함께 연대한 단체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은 공동체의 회복과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한 만큼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컨대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들이 관 주도의 입찰, 발주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면,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은 공공 행정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민간 전문가, 예술가(단체), 인근 수리조선소와 공업사 관계자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단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였다. 특히 특정 장르의 예술이 아닌 디자인과 건축, 기술, 인문학, 도시연구,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역을 넘나들며 결합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창조적 협업을 시도하였다. 사업단은 그들과 함께 각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간 주체가 공공기관과 함께 기획하고, 직접 실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4. 활동을 수행하면서 중점적으로 견지하려고 했던 관점

플랜비가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을 통하여 추구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지향점들은 오랜 시간과 관계의 축적을 통해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이 지니는 본원적인 힘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발휘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과 주민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실제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참여는 대체로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도 있으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단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춤을 통해, 시 쓰기와 같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업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 기자와 해설사를 양성하는

동아리를 운영하여 매월 마을신문을 발간하고 외부 방문객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해설하면서 마을 투어를 진행하였다. 마을다방 동아리에 참가한 2명의 주민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 조성된 마을다방과 공동체 부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도 자연스럽게 마을의 생활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지역민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적 계기들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마을 사업의 주체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주민들이 사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주민들, 행정, 민간 전문가들 간의 화합과 결속이 생겨나면서 지속할 수 있고 신뢰도 높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해 나아갔다.

5. 활동의 성과와 한계, 정책 제언사항

강강이예술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이 가진 역사자원과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적 해석을 통하여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가치 상승 및 활성화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감천문화마을이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은 바다를 건너 사람들의 이야기다. 부산의 특징적인 생활환경으로써 해양, 항구, 조선산업 등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시도였다. 나아가 쇠락한 마을이 아닌 근대역사의 주역으로서 부각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역이 품은 역사적,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한 방향을 제시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여러 아쉬움과 한계도 있다. 특히 민간의 문화예술 전문단체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제도나 예산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마을, 생활현장 등 지역 단위 문화예술 사업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민간-공공의 협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마련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한정된 예산과 기간 속에 완성도 있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유연한 사업운영이나 새로운 시도들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 지원과 사업운영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질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서 3~5년 단위의 문화정책 지원사업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보드게임 아젠다 메이커스 개발 사례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1.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의 정신: 놀며 배우는 사람의 터

- ① 우리 모두가 저자(주권자)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콘텐츠 및 의견의 생산-매개-수용의 선순환 구조 창출.
- ② 주권적(자기 결정)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고 서로 하는 민주시민 역량(지성, 감수성, 참여와 체험, 표현과 실천의 역량) 교육을 표방(관계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역량의 평등성에서 출발하여 민주적 역량의 다양성을 발휘하는 장을 펼침).
- ③ 정치교육으로 축소되지 않은 일상 중심의 포괄적 민주시민교육 추구.
(기본 역량교육 = 포괄적 이슈 / 심화형 민주시민교육 = 특정 이슈)

2. 보드게임 교재 개발의 이유: 기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① 교사양성 과정을 통해서 정작 교사가 양성되지 않고, 아울러 교사 양성을 거쳐도 교사를 파견할 장이 없었음.
- ② 지역 역량 중심의 교육을 넘어 복합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 ③ 문화예술의 감수성이 가미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로 예술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을 접목
(문화예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접점 마련).
- ④ 민주시민교육=토론 중심의 정치 교육의 도식을 깰 필요(토론 = debate라는 협소한 도식도 깰 필요가 있었음)
토론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일상적 대화가 갖는 민주적 가능성을 긍정하는 교육의 필요.

3. 아젠다 메이커스 제작 계기와 과정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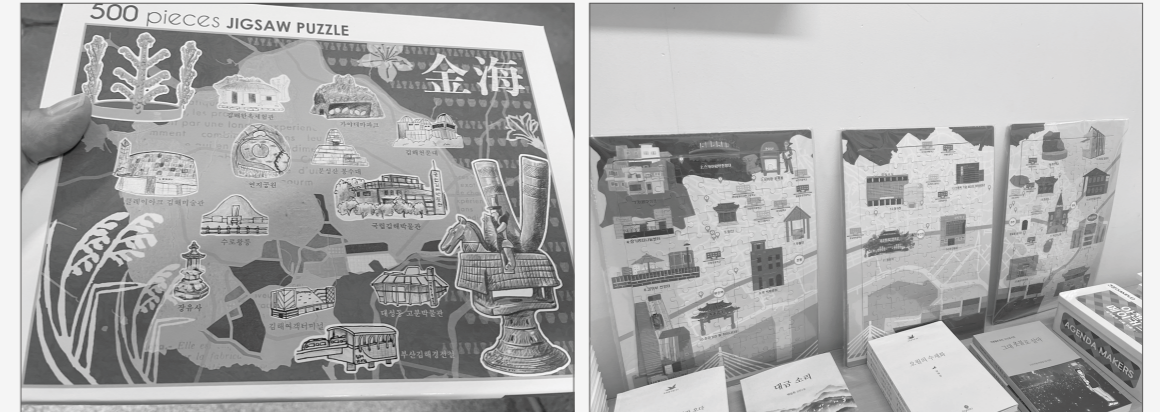
- ① 민주시민교육이 재미와 예술과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
- ② 나락한알에서 격년 간 출간하는 시민의제사전의 발행 경험과, 동구 다행복지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거치면서 의제 수집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절감.
- ③ 시민 참여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을 모델로 한 퍼즐을 2회 제작한 이전의 경험(김해와 동구 다행복지구)을 토대로 시민 참여 문화예술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로 종합하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제기.
- ④ 게임 개발을 위한 공공사업 공모와 선정.

#과정

- ① 보드게임 개발자 공개모집과 디자이너 섭외.
(심성아 작가: 교육원의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하고 교육원 콘텐츠 개발을 수차례 진행)
- ② 사회적 보드게임을 구입하여 개발자들과 다양한 보드게임의 유형과 형식을 비교 검토.
- ③ 보드게임에 수록될 내용과 보드게임의 형식에 대한 회의.

- ④ 초안 제작과 테스트, 교정과 가감 사항 등으로 게임 밸런스 조정(문구, 숫자, 방법, 캐릭터 등).
- ⑤ 보드게임 출시와 배포(제작비 지원: 부산문화재단+동구 다행복지구의 보드게임 제작비 지원+교육원 자비 투여로 추가 제작-> 공공 기금을 사용한 보드게임은 비매출 출시, 교육원 자비 투여로 제작한 보드게임은 후원금 및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여 출시).

<시민 참여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김해, 동구 다행복 지구)을 모델로 제작한 퍼즐>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제공

4. 아젠다 메이커스의 활용

<보드게임 아젠다 메이커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제공

- ① 게임 운용 설명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 ② 게임 활용에 기반을 둔 교사양성 교육.
- ③ 교사 투입(양산 시민, 동구 내 초-중-고, 남구 마을교육 단체 및 남구 학교 등에 보드게임 교사 파견
→ 2022년 동구 자유학년제에 보드게임이 2차시 교육 예정)
- ④ 게임을 도구로 한 다양한 사용법 개발(회의 자료용, 진로 교육용 등).
- ⑤ 다음 보드게임 계획의 기반(2021년 11월 <너와 나의 만찬>이라는 차별금지 보드게임이 출시 예정.
현재 디자인을 완성하여 제품 제작 중).

5. 아젠다 메이커스의 특징

1) 교육적 특징

- 마을 만들기와 지역 관련 시사 정보 제공(신문의 형식).
-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 취약한 존재에 대한 존중과, 비범하지 않은 능력도 존중할 수 있는 시민의 덕(republican virtue)성이 게임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배치.
- 참여형 게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배움(과정 예술이자, 과정 교육)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수행하는 상호 배움의 효과.
- 교사 양성과 파견의 현실화.
- 지역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이에 기반을 둔 의제 추출과 공유.
- 게임과 교육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 교육이 자연스럽게 접합된 민주시민교육.
- on-off라인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찾고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함.)

2)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극 및 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콘텐츠의 문서화라는 획일성 타파. 민주시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육 진입 장벽의 완화.
- 지역 없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벗어나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 제시 및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 교사 양성과 보급의 실질적 효과 창출 및 현실화.
- 최근 마을 교육의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교육콘텐츠 출시, 실질적 마을 의제 생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것.

3) 놀이, 문화, 소통

- 게임의 색감이 마을의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미적 감각과 지적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색과 디자인).
- 토론과 대화의 다양성을 통해 소통이 주는 즐거움이 배움과 연결.
- 개인의 성취감과 협동이 주는 쾌감이 마을 만들기라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성 교육과 연결.
- 민주적 발화가 주는 중압감을 벗어나 농담이 허용되는 민주주의(상상력의 민주주의).

4) 창의성과 참여

- 스토리 크리에이팅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을 문제 해결.
- 마을의 문제를 통계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마을의 균형을 고민함으로써 행복한 마을을 모두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게임.
- 게임 운용의 창의적 여지가 많고, 게임 참여자가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의제가 생산됨.
- 농담을 허용하는 민주주의, 해학이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말하기와 소통의 창의성이 제도적 상상력으로 연결.
- 게임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창의성 발휘에 장벽이 없음.
- 기존 게임의 변용 가능성에 개방된 콘텐츠.
- 콘텐츠 개발의 연속적 동기 제공.

6. 한계와 보완

- ① 게임 규칙 속지가 처음에 쉽지 않아, 게임 진입이 쉽지 않음(현장에서 활용해 본 결과 일단 한 번 익히면 게임 운용이 매우 쉬움, 초반 진입이 제일 난제).
 - * 보완: 교육용 콘텐츠로 제작한 것이라, 다소 어려운 면이 있으나, 실제로 학교 교육을 나가면 학생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며 게임을 활용함. 따라서 학교 현장 교육 교재로서는 매우 잘 활용되고 있고, 덕분에 교사 파견의 횟수가 점점 늘고 있음.
- ② 보드게임 제작 수가 많지 않아 게임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쌌. 아울러 유명한 보드게임의 가격을 생각한 분들이 게임 구입비용을 듣고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 * 보완: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작비를 대고 주문 제작한 경우가 있음. 현재로서는 교육원 재정으로는 추가 제작이 어려운 상황. 목돈 들여 제작하고 한 개씩 판매하는 것으로는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
- ③ 대중적 보급의 한계: 영리 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이자, 인력이 부족한 단체로서 판로를 뚫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
 - * 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 시내뿐 아니라 시외(양산, 군포, 충남 등)에서도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는 오고 있음.

7. 아젠다 메이커스 제작 후기

현재 <아젠다 메이커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용 교재이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재로 주목받고 있음. 아울러 최근 마을 교육의 중요성 확대되면서, <아젠다 메이커스>에 대한 주목이 더욱 많이 진행되고 있음. 지역 사회에서 의제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생산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 게임을 즐기게 되면, 지역 문제와 이슈의 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등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대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유학년제, 다행복지구 등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 더군다나 최근 민주시민교육 입법,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의 바람, 각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결성 등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출시된 보드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최근 차별 금지 보드 게임 <너와 나의 만찬>이 출시되기 직전이며, 2022년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보드 게임을 출시할 계획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 결합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교사 파견도 더욱 가속화할 예정. 향후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하고, 공익을 위한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듯함. 비영리단체에서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함.

성매매 집결지 문화행사 '언니야 놀자' 사례

정경숙 완월동 기록연구소 소장

1. 완월동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1) 완월동의 역사적 가치

한반도 최초의 유곽이자 한때 동양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완월동은 1904년 전후로 조성된 곳이다. 이곳은 일본에 의해 유곽으로 조성되어 일제 강점기때 공창제도가 시행된 곳이며 6.25전쟁 때 UN군과 미군의 위안소로 이용되었다.

1961년대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가 불법이었지만 이후에도 완월동 지역은 일본인들의 기생관광, 미군 항공모함 이 정박하는 부산항을 이용하여 미군들로부터 외화벌이 수단으로 국가가 여성들을 이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부산 최초의 계획공원인 백년가로 공원과 부산 최초의 신작로인 천마로가 있으며, 일본식 가옥인 적산가옥이 남아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특별법제정과 시행, 2020년 완월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2021년 도시재생사업의 무산으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 완월동의 사회적 가치

이곳은 식민지, 전쟁, 군부독재를 거치며 국가가 방치하고 묵인한 심지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여성들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곳이다. 또한 여성 성착취와 인권유린의 역사적 현장이며 일본에 의한 지배의 역사가 묻어있는 한국 현대사의 외상(트라우마)의 장소이기도 하다.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의 외상으로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외상을 치유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이 화해하고 연대하는 공간,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최초로 개최한 문화행사 '언니야 놀자'

1) 배경

1904년 전후로 형성된 완월동은 일제시대는 공창(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함) 지역으로, 해방이후는 사창이나 '특별지역'으로 국가가 관리하면서 성매매여 성과 성구매자, 성산업과 관련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완월동성매매 집결지(이하 완월동)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이 시작되었다. 밤이면 성구매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이곳은 암흑천지로 변했다. 경찰의 단속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완월동 성매매 여성들은 '해어화'(말을 알아듣는 '꽃'이란 뜻으로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라는 자치 조직을 만들었다. 해어화는 생존권을 위해 전국적인 시위뿐만 아니라 살림(부산지역 반성매매 활동단체)과의 만남도 이어갔다. 살림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과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위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친밀감을 쌓아 나갔다. 살림의 이런 노력들은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의 공간이었던 완월동이 반성매매활동가들에게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완월동은 주택가와 밀접한 곳에 있으나, 주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해 외면당하는 공간이다. 성매매 여성으로 대상화된 여성들이 그 마을을 주인되는 행사, 행사당일 하루만이라도 문화의 향유와 심을 주고 싶다는 마음, 외부와의 소통과 연결로서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2) 사업목적

① 완월동, 성매매 거리에서 문화거리로 탈바꿈

항구도시이며 관광도시인 탓에 부산의 성매매 현실이 타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동양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거리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성매매를 위한 거리로서 암묵적으로 존재해왔다. 이곳은 수십년 간 성매매 이외에는 어떠한 문화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성매매 거리로서 방치되어왔다. 이곳은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무거운 삶과 찌든 일상의 거리였다. 이에 사회적으로 문화에서 소외되어온 언니들에게 삶의 희망과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타자들을 위한 길이 아닌 완월동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살아숨쉬는 '길'로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문화를 통한 신뢰감을 형성하여 완월동 여성들의 치유 돕기

가족과 지인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공간에 유입된 이후 모든 것이 거래로 규정지어지는 인간관계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 행사는 거래관계만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모색하는 놀이의 장이다. 마을잔치라는 '놀이'를 통한 어우러짐은 다른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성매매 집결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인들의 참여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타인의 눈에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즐거운 마을 잔치로 구성했다.

③ 살림만이 할 수 있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한판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완월동 여성들의 자치조직인 해어화와 살림은 생존권을 위한 시위와 여성부 집결지시범 사업 등에 대한 협조와 연대, 매주 정기적·비정기적 아웃리치를 통해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다. 성매매 여성들과 살림의 라포 형성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행사는 업소관계자와 성매매 여성들과의 소통의 창을 넓혀 여성들이 탈업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3월 - 6월

| 참가대상 |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 200명, 인근 주민 100명, 문화기획자, 예술가 150여명 예상하였음

| 추진방법 |

- <언니야 놀자> 마을잔치 공동기획팀 구성

(성매매 여성들 조직 '해어화',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활동가 및 거리축제기획팀 '재미난 사람들')

- 예술인, 문화기획자, 자원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100명과 살림활동가가 함께 참여

- 마을 주민대표(상인, 부녀회, 마을자치조직)와 경찰·구청·시청·여성부등 행정조직과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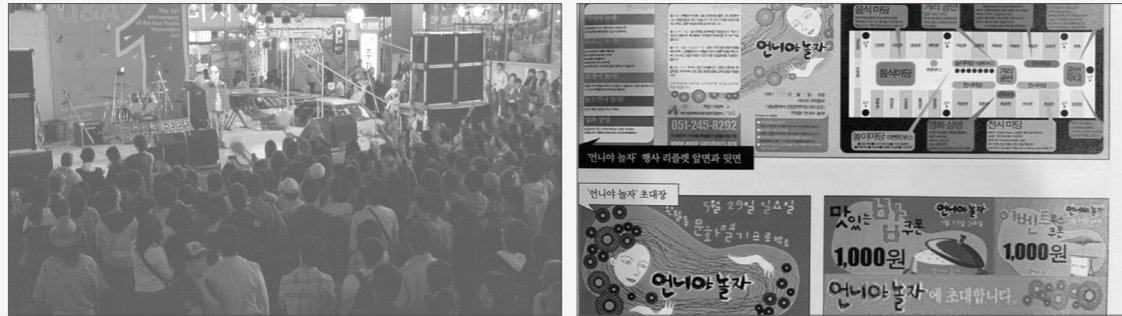
| 행사내용 |

추진행사	세부 내용
음식잔치	통구이 바비큐, 보글보글 팔도요리, 화해의 커피숍운영
공연	길놀이와 푸닥거리, 밴드공연과 무용팀 무대공연
장기자랑	주민, 완월동여성들, 활동가
전시	인근 아이들 미술작품, 성매매 여성들과 마을주민 공동작품, 성매매 여성들의 작품, 예술가 작품
부대행사	타로카드부스, 페이스페인팅, 폴리마켓 부스등

4. 행사의 무산

행사 당일 완월동 상인 연합회, 업주와 공권력의 결탁으로 행사가 무산되었다. 이후 부산서부 경찰서장을 직무 유기혐의로 경찰청에 진정서를 넣었으며 관련경찰들의 대규모 부서이동이 이루어졌다. 행사가 무산된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남포동 BIFF 광장에서 Q&A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언니야 놀자’ 관련 사진>



5. 시사점

완월동 언니야 놀자를 진행하며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전국 최초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시도한 문화행사였다.
- ② 행사준비과정에서 참여한 예술가·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완월동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와 성매매문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토론했으며 완월동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 ③ 주변지역과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연결망이 필요하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당과 교회 등 종교시설과 마을 공동체등과 유기적인 협력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하다. 다만 완월동 주변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월동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대상화, 여성들의 신분과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④ 부산지역의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6. 이후의 살림의 활동

‘언니야 놀자’ 무산 이후, 살림은 남포동에서 성매매방지법 1주년 문화제를 열었고, 그 이후에도 언니다큐멘터리 제작 등 예술가들과의 크고 작은 교류들을 맺어왔다. 2006년부터 다년간 서면 지하철역이나 연산동 지하철역, 사상 지하철역 등에서 ‘사는 사람들’등을 주제로 성매매문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5년 부산지역 예술인과 여러 네트워크와 함께 완월동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완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완생’은 ‘완월동을 다시 생각한다.’거나 ‘완월동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언젠가는 완월동도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있다. 이 작업은 완월동을 예술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완월동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완월동 편지’, 사람들과 완월동이라는 공간을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를 담은 ‘주간 불현 듯’, 언니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동물과의 교감을 담은 ‘기대고 또 기대고’, 완월동에 대한 여러 이슈를 담은 ‘완겨레’등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여성인권의 길 걷기 등 완월동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올해는 ‘기억하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완월동 여성들, 마을주민, 활동가들의 구술과 인터뷰영상, 성착취의 역사기록들을 수집하여 ‘여성인권의 역사를 기록하는 완월동 아카이브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미디어접근소외계층 콘텐츠 제작지원 사례 당사자 참여 콘텐츠 <송TV>,<명도가 간다>,<자립비책>사례 중심으로

박지선 미디어리협동조합 이사

미디어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유지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협동의 힘으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과 나눈다.’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방향이 활자에 머물지 않기 위해, 미디어리가 잘할 수 있는 방식, 미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다.

누구나 간단히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지만, 새로운 미디어환경이 도래할수록 정보의 왜곡과 혐오이미지는 만연해지고, 정보접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미디어리는 주류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외된 이웃의 삶을 조명하고 문화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왜곡되거나 낮아진 목소리(당사자)를 우리 지역 내에서, 가까운 이웃에서 찾고자했다. 이들과 시민사회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방식의 당사자 콘텐츠 제작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1. 커뮤니티/공동체 미디어 제작지원 사례

미디어리의 ‘제작지원’ 방식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단순히 대변하는 차원으로 전문가 제작의 전체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한다. 당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사회에 발신할 공익적 메시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쳐, 그것이 확산되기에 적합한 방식을 함께 선택한다. 기술적 한계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업’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콘텐츠로 ‘되어져가는’ 경험을 감각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레거시 미디어(TV, 라디오 등)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주로 했다면, 2010년을 지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디오 팟캐스트, 영상팟캐스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가 등장, 당사자들 또한 S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당사자 조직의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작지원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송국클럽하우스의 <송TV>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송국클럽하우스’는 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럽하우스 공동체이다. 미디어리와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시작되었다. 미디어교육을 해보면 장애인인든 비장애인인든 교육 수료 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송국클럽하우스 회원들은 시작할 때부터 당사자들이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유튜브 채널 <송TV>를 런칭하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송국 회원들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기획에 앞서 사회가 당사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묘사하고 그로 인해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1) 모니터링: 기존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정신장애인의 모습은?

- 모니터링과 주변인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정신 장애인 관련 콘텐츠는 거의 다 사건사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혐오감을 주는 뉴스 콘텐츠가 대부분이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총동적으로 저지른 사건은 모두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것처럼 보도한다.
- 입원이나 시설에 보내는 걸 필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 비장애인들의 인권만 중요하게 보도하는 것 같다.
- 정신장애인은 사회에 놔두면 안 되는 존재, 집이나 병원에서 나오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 정신질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모습
- 병은 심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정신병도 마찬가지다.
- 조현병 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공황장애처럼 남들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기획방향: 나라면 이렇게 만들겠어요!

-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 담지 않기.
- 약을 먹으면 양성 증상은 해결된다는 걸 알리고 싶다.
- 범죄비율은 비장애인이 더 높다.
-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보도도 필요하다.
-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자주 보여줘야 한다.

(3) 참여자들이 정리한 기획의도

- 사람들이 우리 정신 장애인들의 증상이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4) 제작예시: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 (실험카메라)

첫 번째로 당사자가 기획한 콘텐츠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인 실험카메라 영상이다. 지금까지 주류미디어가 정신 장애인에게 덧씌운 혐오와 왜곡된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정신 장애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신 장애인의 주요 증상을 보여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질문은 '실험카메라'라는 장치를 선택하게 했다.

<송국클럽하우스 채널 <송TV>, <정신장애인이 길을 물어본다면?>편의 한 장면>



※<송TV>채널 화면 캡처

(5) 시사점

실험카메라라는 다소 적극적인 형식을 취한 데는 부산시민들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을 거라는 또 다른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장애를 밝히며 부산시민에게 길을 재차 묻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 대부분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답변해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당사자들 역시 자신이 부산시민들에게 가졌던 편견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모아 지금의 <송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당사자 스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 일 경험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상 브이로그 등을 통해 주류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보여주고 있다. 직장동료로 함께 하게 된 분이 정신장애를 가졌다면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되는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팁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탐구생활 <명도가 간다>, <자립비책>

부산탐구생활은 부산시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시청자 참여 방송이다. 노동자, 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 지역예술인 등 커뮤니티, 마을, 시민사회 소식까지 다양한 계층의 삶을 가까이서 조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명도가 간다>, <자립비책>은 시리즈별로 런칭한 문화다양성 콘텐츠다.

(1) <명도가 간다>

<명도가 간다>는 휠체어 장애인의 시선으로 부산의 공간과 장소에 이동하고 머무는 여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명도 씨의 카메라에 작은 캠코더를 장착하였다. 카메라는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떨거림도 담아냈다. 휠체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카메라의 거친 화면을 통해 도로의 아주 작은 턱에서 위험을 감지하게 된다. 경험을 감각하는 것, 00되기의 경험은 짧은 찰나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이들이 되기의 경험을 할 기회를 가져야 소수자를 위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행동이 아주 많이 자주 모여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명도가 간다>라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 시리즈를 찍고 난 후 미디토리 구성원들은 보도블록의 턱에 굉장히 민감해졌으며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관광명소라는 허울뿐인 팻말을 볼 때마다 분노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2) <자립비책> 시즌1,2,3

<명도가 간다>시즌을 종료한 후, 미디토리 구성원들은 문득 휠체어를 탄 남성장애인이나 남성노인은 비교적 자주 마주치는데 반해 여성장애인을 마주치는 확률이 지극히 적다는 사실에 질문을 품게 된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성 장애인, 가부장적 문화와 비장애 남성 중심의 사회시스템 속에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을 제공받을 경우가 최근의 통계에서도 그 격차라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는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자립비책 시즌1은 여성장애인들의 이야기로 출발했다. '부산여성장애인연대'와 함께 기획하고 다양한 신체장애와 연령대, 일 경험을 가진 여성장애인분들을 섭외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토크형식으로 풀어냈다. '비장애인/남성' 중심 사회를 향해 자립을 선언한 여자들의 시원한 수다의 장이 필요했다. 아이를 키우는 시각장애인 엄마들의 이야기, 자립한 언니가 들려주는 독립성공스토리, 장애를 가진 몸이 나이들어가다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지금의 제도가 가진 한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였다. 스텝들은 제작초반에 다양한 신체장애를 가진 분들이 혹시나 촬영현장에서 불편해하진 않으실까 우물쭈물 여쭈

줄을 몰라했지만, 회를 거듭하며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요청하고 응대했다. 또한 활동가라 자처한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획일화된 여성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여성은 훨씬 더 다양한 몸을 가질 수 있으며 상품화된 몸보다 더 가치화 되어야함을 느꼈다.

<자립비책 시즌2. 한부모가족의 담담하고 당당한 토크>



※ <자립비책> 채널 화면 캡처

자립비책 시즌2는 한부모가족센터와 함께 제작했으며, 센터 회원인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각자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출연하고 기획과 대본작성에도 참여했다. 돌봄과 생계를 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작진은 한부모 여성가장의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시간의 빈곤'에 가장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한부모 가정에서 홀로 지내는 아동에 관한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어렵게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편견,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배드파더스에 대한 처벌강화 등 혼자서 아닌 함께 싸워나가며 자립의 기반을 다져가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자립비책 시즌3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함께 부산지역의 성착취 현장을 중심으로 여성인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기획중이다.

3. '00되기'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미디어

미디토리 활동가들은 지난 10년간 위와 같은 사례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사회에 발신하는 메시지는 다채롭고 힘이 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화해왔다. 미디토리의 단면을 잘라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만난 당사자들의 언어가 단단하게 어우러져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싶다. 당사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들의 언어가 공공의 메시지(콘텐츠)로 '되어져가는' 경험은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화학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게 만든다. 한편 자본의 경계에 서있는 미디어 제작환경은 우리 앞에 한계 아닌 한계로 작용한다.

4. 문화운동과 미디어운동, 그 사이를 씬 없이 오가며 약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실어 나르는 문화매개자, '미디어 활동가들'

문화다양성콘텐츠로 수상의 기쁨도 누렸지만, 뼈뺀 제작비 앞에선 늘 다음 행보를 망설이게 된다. 지역문화재단 문화

다양성 사업파트에 자립비책 콘텐츠 기획안을 제안드려 보았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영역에서 미디어콘텐츠 제작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장애인문화예술 사업파트에 문의해보니 교육강사와 장애예술인이라는 자격으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미디어활동을 '제작지원'하는 지위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다.

뉴미디어콘텐츠나 숏폼 공모사업에서는 공공성보다는 콘텐츠의 시장성과 영향력을 중요한 기대효과 전략으로 서술해야 했다. 대상화되길 원치 않는 소수자의 목소리와 외모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힘들다. 시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기획안을 쓰는 입장에서 모순적이다. 로컬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은 해가 갈수록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상품과 프로그램 위주의 로컬비즈니스나 수익창출 모델 형태의 창업지원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비영리 관련 공모사업은 전국단위며,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지역단위의 공익적인 콘텐츠 지원은 찾기 힘들다. 서울의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있어 구마다 마을미디어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남녀노소 마을 주민들의 활동과 의제가 마을라디오나 방송국의 콘텐츠로 모여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 공공미디어 콘텐츠는 아직 미디어활동가들의 버팀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마을미디어, 공동체라디오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미디어들이 지역과 이웃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미디어가 전통적인 예술장르를 매개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문화다양성이 지역민의 일상에 자리하게 하는 문화매개자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특히 문화운동과 미디어운동 사이를 오가며 사회적 가치를 실어 나르는 청년 미디어활동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사례와 ESG경영 (주)DRB동일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민 DRB 지속성장부부장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 중 하나인 (주)DRB동일(동일고무벨트 등)은 1945년 창립 이래 올해까지 76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다. 그동안 고촌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통상적 사회공헌과 구성원의 복리후생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는 시대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해 가고 있다. 먼저 복리후생을 살펴보면 상해보험 가입, 종합검진, 사내헬스장, 동호회 지원,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산·사산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부모 회갑 휴가 및 경조금, 상조지원서비스 및 조화 지급, 사망·탈상·승중상 휴가 및 조의금 지급, 온라인 어학교육 지원,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 학자금 지급, 임직원 건강관리 등이 있고, 사회공헌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가게 개최, 유니브엑스포 부산 후원, 오케스트라 후원, 명절 지역사회단체 후원, 사랑의 쌀 나누기,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DRB 사회공헌플랫폼 캠퍼스D 운영, NGO 지원 등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 요구와 가치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도 유사한 상황일거라 추측된다.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활동을 통해 소개한바 있는 '사회공헌 플랫폼 캠퍼스D', 'DRB 포럼', '창의적 영감을 얻기 위한 문화체험 프로젝트'이다.

먼저 캠퍼스D는 1995년에 개관한 복지관을 2017년에 리뉴얼하여 강당(극장), 정원, 연습실, 오픈 공간, 회의실, 전시 공간, 입주공간을 갖추고 지역주민, 소외계층, 예술단체, 부산시민, 청년단체가 무료로 공간을 공유하고, 입주단체에는 회사 식당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캠퍼스D를 매개로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이 상호교류하고 예술인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후원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회사 구성원과 자녀, 가족에게는 자긍심 고취, 문화 다양성 교육, 문화예술의 이해, 사회적 가치 확산의 효과를 견인 할 수 있었다. 수혜를 받은 입주단체는 안정적 활동의 터전이 마련됨으로 인해 회사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정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단체 간 연대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공동의 가치인 기후환경, 아동인권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회사 구성원과 연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활동을 살펴보면 영화상영, 강연, 세미나, 풍물, 청소년 댄스동아리, 지역주민 동아리, 탄소감축 캠페인, 국악, 클래식 콘서트, 야구관람, 농구관람, 오페라 관람,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 개최, 직장문화배달서비스, 요가, 명상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 유니세프 캠페인, 과학창의교육, 국제이해사진교실, 한·미 청소년 평화캠프, 아동극 공연, 메이커 교실, 국립부산과학관 과학캠프, 회사 구성원에게 아침식사 푸드트럭 제공 등이다. 캠퍼스D 사무실 입주인원 50명, 요일별로 연습공간을 배분해 공유하는 20팀의 상주단체 운영, 파트너십을 통한 비정기적 대관 형식으로 60개 단체가 연습공간 등으로 활용 하였다. 입주, 상주, 파트너십 예술가와 단체들은 회사 구성원들에게 공간사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본인들이 각각 제작한 30편의 공연프로그램에 구성원 가족들을 초대했고, 본인들이 연계 된 후원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야구관람권, 프로농구 관람권, 외부극장 타 공연 초대권 등을 회사구성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해 2000명 이상에게 좌석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2016년도에 진행한 창문(창의적 영감을 얻기 위한 문화체험)프로젝트는 총 3개월간 국내외 회사 구성원 500명

을 12개 조로 나눠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서촌, 북촌, 삼청동, 가회동, 이태원, 경복궁, 고궁박물관, 현대미술관, 어둠속의 대화, 이회영 기념관, 자연주의 건축, 이상, 윤동주 하숙집, 이슬람 사원, 젠틀몬스터 등 지역문화전문가, 시각장애인, 전문 해설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전통과 혁신 사례, 지역유산의 활용,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 예술과 기술의 융합, 조선과 근대·현대의 발자취, 거대 도시속의 소외와 글로벌 사례 등 다양한 사회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서울 토박이들조차 모르고 있었던 서울의 역사와 가치, 익숙한 공간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프로젝트였다. 2019년도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창문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국내 구성원과 미국, 중국, 베트남, 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해외 주재원 전원이 참여하였고, 가이드로서 매주 40명의 조별 투어를 위해 4개월간 매주 일본에 건너가 3박 4일을 걸어야 했지만 이 프로젝트 또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가나자와, 나가하마, 교토, 오사카, 후쿠이, 아라시야마 지역을 돌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 운봉길 의사의 마지막 장소, 한반도에서 넘어간 한민족의 발자취와 문화유산, 안도다다오의 건축,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투자, 예술가를 위한 투자, 지역유산의 활용, 일본기업의 장단점, 도시재생 사례 등 1차 프로젝트 때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일본인과 일본 주재원도 가보지 못했던 일본 내륙을 통과하는 코스였으며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이 매우 의미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DRB 포럼'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집체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포럼의 목적은 지식 정보제공,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함이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및 활동가, 각종 예술공연, 회사 내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구성원들이 주제별로 발표, 토론하는 프로그램,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듯 회사 구성원에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업무를 함에 있어 제조업 특유의 경직된 문화를 변화시키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기반으로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일구어 내고자 함이다. 다양한 관점과 유연함으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야 탄탄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고 역동적이고 탄탄한 기업 문화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는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자양분을 얻는 기회이자,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신선한 자극을 받고자 함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현장에서 문화 관련 일을 하던 입장에서, 기업이란 생경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유사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들을 부산문화재단에 소개하고 싶음이었다. 문화예술과 기업, 문화기획자와 기업, 메세나 참여로서의 역할로 유도하기에도 쉽지 않았던 기업이란 조직이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번곡점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산문화재단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변화를 주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다.

기업의 경영은 과거 주주만을 기업의 주인으로 여기던 '주주자본주의'에서 오늘날 주주를 포함한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공동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경영 패러다임이 변모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 기업의 사회공헌의 관점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보다 착한기업으로 인식되던 관점을 지나, 기업도 하나의 사회 구성요소로서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ESG 경영이 도래하면서 변화의 흐름이 한층 가속화 되고 있다.

ESG는 탄소저감, 순환경제, 사회공헌,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며 기업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아 오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달라진 세상과 고객가치의 본질적인 변화 등을 경험하였고, ESG로의 경영 패러다임은 가속화 되고 있다. Environment(환경)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자원고갈, 에너지 효율. Social(사회)은 인권, 현대노예, 아동근로, 성별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Governance(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로비 및 정치 기부금, 기업윤리를 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아닌, 강력한 규제와 제재, 기업의 Supply Chain(공급망) 탈락 즉, 기업의 생존에 있어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체계를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 하고, 기업의 Purpose & Vision을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새로운 목표를 우선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업은 지구환경을 지켜야 하고, 준법경영, 투명경영 등 주주, 구성원, 협력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는 각국 정부, 투자회사, 협력업체 등이 이러한 기업의 ESG 현황을 평가, 공시하여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국제사회 기준의 ESG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관과 연계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2000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UNGC는 기업들에게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것을 권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UNGC한국협회 명예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인 점 등을 통해 유추해보면 ESG경영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으로 연결되어 지는 지점도 있다고 보여 진다.

거버넌스 전문가는 법적 기업이슈의 90%가 거버넌스 문제로 인한 것이니 ESG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말한다. 환경 전문가는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며 인류가 다 죽게 생겼는데 거버넌스는 무슨, ESG의 핵심은 환경이라고 말한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Social 사회적 가치 분야는 너무 범위가 넓고 다양한 타인지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사실,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 재벌 총수로 인식되는 공정하지 않은 기업지배 구조 등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ESG라는 용어로 나타났을까?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실을 알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상이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패닉에 빠진 현상들의 무력함, 아마도 이러한 것들의 중첩과 복합성일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위원으로 한마디 거들자면, 환경전문가, 거버넌스 전문가에게 한마디 하자면, 지금의 현상은 사회적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적 가치에서, 지금은 당장 행동하는 사회적 가치로 변화했기 때문이진 않을까. 사회적 가치분야의 깊고 넓은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서로 다르고 때론 상충되기도 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서로 존중하고 일깨우는 활동가와 예술가,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로움으로 늘 존재하고 확산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2021년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치는 멈춰있는 무엇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2021년이 어느새 저물고 있다. 우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으로 이끈 코로나는 '19'라는 멈춰 있지만 우리는 어느덧 두 해를 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사회의 역할과 지역의 역할, 시민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사회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된 것도 그 깨달음의 과정이 아닌가 한다.

부산문화재단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의 2021년은 그 고민에 공감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누구도 뚜렷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 함께 찾아가는 수밖에. 서로가 가진 현장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지역에서 만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찾아보기로 했다. 답을 찾기 보다는 길을 더듬어 가는 더딘 과정이었지만 지역의 생생한 경험을 만날 수 있어서 벅찬 배움의 순간들이 많았다.

귀한 시간을 내어 알차게 사례를 정리해 주신 위원들 덕분에 밥숟가락만 얻고서도 배가 부른 호사를 누렸다.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고 경험을 나누면서 매번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되돌아오곤 했던 고민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문화예술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줄기로 본다면 심미적 가치는 내재적 가치라 할 수 있겠고 사회안정, 질서, 교육, 경제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재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예술의 가치는 내재적 가치에서 외재적 가치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에 대한 이해, 향유 계층의 정체성 반영, 예술의 시장적, 사회적 가치로 확대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향유자의 경험 중심의 가치를 넘어 대상 본연의 가치와 참여를 통한 행위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가치는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의 참여, 과정의 가치와 그 긍정적 영향력은 물론이고 복잡해지고 분절되는 사회로 갈수록 문화예술이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고리로서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문화예술이 가치가 점차 확산되고, 분야별 정책 전반에 문화예술과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이 다른 분야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거나 소모될 수 있다는 의견은 언제나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다.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의 논의에서도 문화예술 본연의 내재적 가치와 특성을 지키면서 다른 분야와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나누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고민은 멈추지 않겠지만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 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고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먼 길의 시작으로 좋았다 여겨진다. 부산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이 더 부지런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문화예술,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 공작(工作 그리고 共作)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에서의 배움

윤성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2019년에 개소한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정책위원회의 4개 분과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분과를 만들었다. 조직구성 초기부터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2년 하고도 반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타의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문화예술인도 아니고, 문화예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 이방인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혹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적절한 대답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평소 삶과 사회의 질 혹은 격을 높이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논을 해왔지만, 충분한 해답을 연결하지 못하였다. 연결되지 못한 해답을 안고 꾸역꾸역 사회적 가치확산분과에 참여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공부다. 사회적 가치확산분과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고, 상이한 입장들의 경계선을 들락거리며 살펴 보게 되었다. 2021년에는 위원들이 속해있는 업장에서 수행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 보면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힘(capability)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2.

2021년의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의 작업은 분과위원이 활동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학습하는 논의가 중심이었다. 이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이 삶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과를 일구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치유, 연결, 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 등 삶의 존엄을 돌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역할과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완월동 기록연구소의 정경숙 소장이 발표한 ‘언니야 놀자’라는 성매매 집결지 문화행사의 사례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사람과 사회의 외상을 발견하고 이를 삶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타자들을 위한 길’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길’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와 주민과 활동가들의 협업과 기억을 살펴보는 기회였다.

미디어협동조합의 박지선 이사가 발표한 ‘미디어접근소외계층 콘텐츠 제작지원 사례’에서는 정신장애인, 장애인, 여성장애인, 한부모여성가장 등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들의 주체적 시선으로 대상화(objectification)를 넘어서는 협업 작업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단순히 대변하는 차원’이 아닌 ‘협업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콘텐츠화하는’ 미디어운동과 문화운동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조현민 위원의 “(주)DRB동일 사례”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기업의 경영방식의 변화를 ESG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기회였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문화예술인, 기업인들의 협업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 플랜비 송교성 실장이 발표한 ‘영도 강강이마을’ 사례는 단편적인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넘어 사람과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담아내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과였다. ‘바다를 건너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민과 문화 예술단체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성 강화와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장을 시도하는 사례였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길 김동규 원장은 ‘사회적 보드게임 아젠다 메이커스 개발’ 사례를 발표하였다.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가미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보드게임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례였다. 마을 즉 공동체의 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교재를 예술과 결합하여 개발하는 시도이었다. 예술적 노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교육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었다.

3.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위원들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면서 문화예술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작업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부터 공동체를 공진화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유할 권리이자 공동의 작업이지 않을까? 문화예술은 장인(匠人)들의 작업으로써 공작(工作)일 뿐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넘어 연결과 협업을 통해 삶을 살리고 사회를 공동체로 일구어내는 공동체적 작업, 즉 공작(共作)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배울 수 있었다.

4.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소속 위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위원	변현숙	부산민주변호사모임 젠더위원장
위원	박기영	성평등 예방교육 강사, 목사
위원	박배일	독립영화협회 성평등 환경 지원
위원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위원	하정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위원	주유신	영산대 웹툰영화학과 교수

2021년 주요 활동 내역

날짜	활동명	주요 내용
4. 9	1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데이터 축적 필요성 제기, 재단 사업 절차 등에 대한 성평등 확산 제도화 점검 필요 - 부산판CTS 등 성평등문화 확산 결과물 활용에 대한 방법 모색
6. 4.	2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 지원 사업 심사위원 성비에 대한 문제의식 공감대 형성 -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강조 - 여성을 주체화하고 연대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또는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통해 예술계 내 성평등 필요성 강조
7. 2.	3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창작공간 내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내용 공유를 통해 남녀 공감대 형성 필요성 절감 - 여성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예술활동증명제도 보완사항 토의
9. 3.	4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 포럼 추진을 위한 주요 주제 설정 및 관련 연구 내용 공유 -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논의
12. 21.	5차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회의	-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의 2022년도 과제로 '재단 지원 사업 관련 성폭력·성희롱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에 대한 토론 진행
12. 27.	2021년 지역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발표 공유 및 부산광역시 공공 예술창작공간의 성인지적 분석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계)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활동 모습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1차 회의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2차 회의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3차 회의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5차 회의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4차 온라인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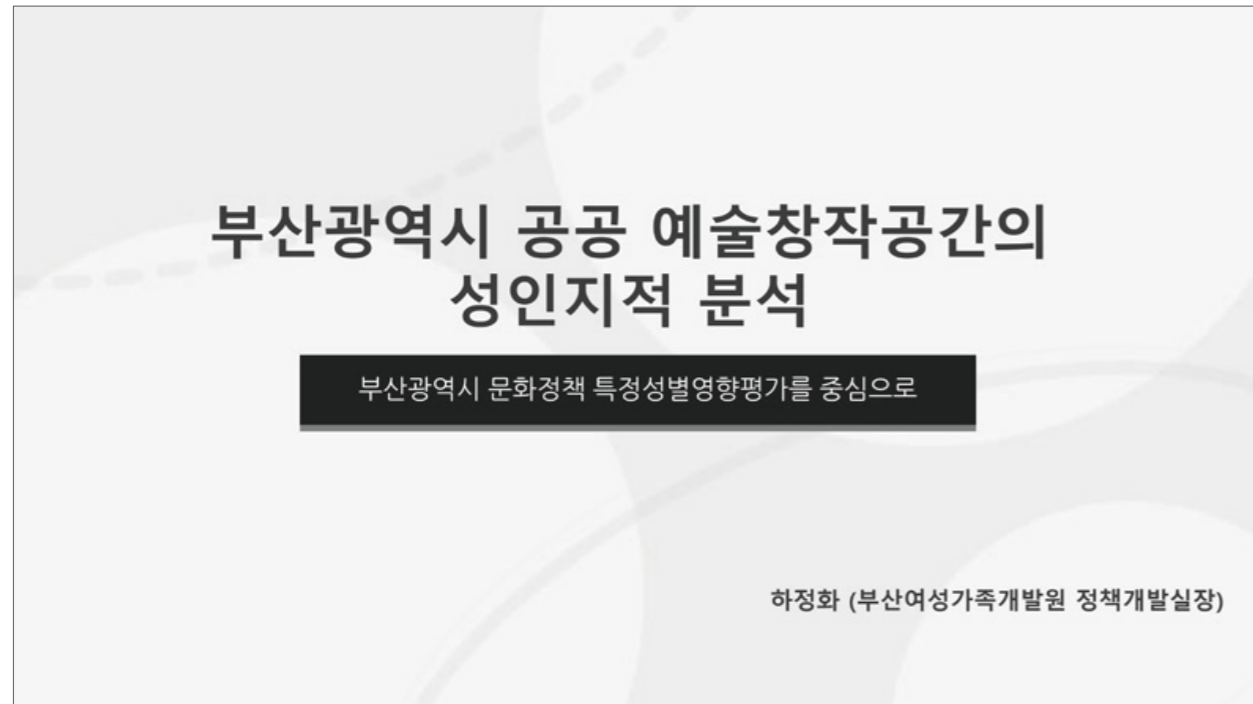
2021년 지역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주요 내용

발제자료

부산광역시 공공 예술창작공간의 성인지적 분석
부산광역시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하정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아래 자료는 '2021년 지역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 당시 발표 자료임



CONTENTS

- 1 연구개요
-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3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4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 창작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6 성평등한 창작 환경 분석



1 연구개요

01

» 연구대상

01 감만창의문화촌

02 홍티아트센터

03 또따또가

04 반딧불이창작공간

1 연구개요

02

» 연구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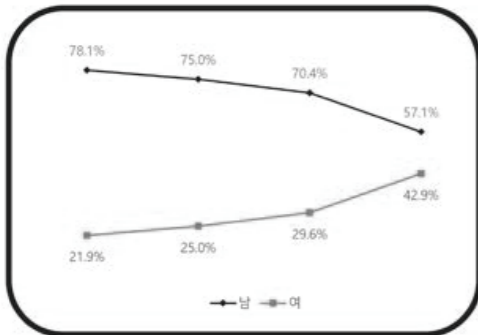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좌담회 참여자			
참여자	입주창작공간	분야	경력	연령대	구분	참여자	소속	직위	성별	참여자	소속	직위	성별
A	감만창의 문화촌	영상+퍼포먼스	13년	40대 초	1차초점 집단면접조사 (8.18)	A	프리랜서	감독	남성	A	○○조합	이사장	여성
B		미술	10년	30대 중반		B	○○센터	상임대표	여성	B	○○시의회	의원	여성
C		사진+영상	5년	30대 말		C	○○연대	대표	여성	C	○○대학교	교수	여성
D		연극	18년	40대 중반		D	○○재단	연구원	여성	D	○○센터	상임대표	여성
E	반딧불이	무용	15년	40대 초		E	○○대학교	교수	여성	E	○○연대	대표	여성
F		미술	10년	40대 말	F	○○재단	팀장	여성	F	○○재단	팀장	여성	
G	또따또가	영화	10년	30대 중반	G	창작공간 ○○	팀장	여성	G	창작공간 ○○	예술가	여성	
H		문학	4년	30대 말	H	창작공간 ○○	담당자	여성	H	창작공간 ○○	예술가	여성	
I		음악	10년	30대 말	I	창작공간 ○○	담당자	여성	I	○○플랫폼	대표	남성	
J	홍티아트센터	시각 설치예술	5년	20대 말	J	창작공간 ○○	담당자	여성					
					3차초점 집단면접조사 (9.14)	K	○○대학교	교수	남성				
						L	○○대학교	교수	남성				
						M	○○대학교	교수	여성				
						N	○○대학교	교수	여성				
						O	○○대학교	교수	여성				
						P	○○대학교	교수	남성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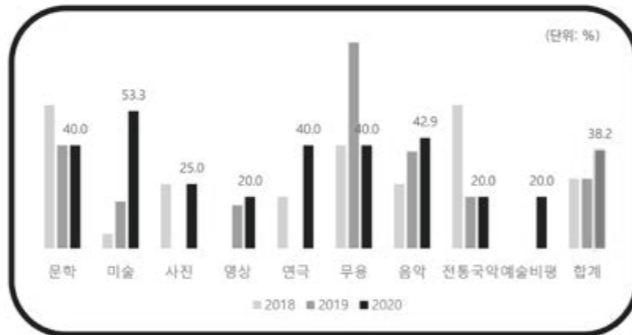
03

»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참여

창작공간 입주 선정위원회 성별 현황



부산문화재단 심의위원 성별 현황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04

» 운영 규정 및 조례에서의 여성 대표성

4개 예술창작공간 운영규정 현황

구분	주요내용	성별고려 조항 여부
김안창의 문화촌	-시설운영 및 관리규정(입주자가 월1회 한해 사용료 감면) -입주기간(1년,1회 연장가능) -운영대행 규정(공정문화재단 명시)	성별고려 조항 없음
홍티아트센터	-업무 및 가능 -운영 및 관리 -위탁계약의 해지	성별고려 조항 없음
도파도가	-사업 내용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장:부구청장, 위원: 5급 이상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가 등)	성별고려 조항 없음
반딧불이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성별고려 조항 없음

예술창작공간 관련 조례

조례명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조례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설운영 및 관리규정(입주자가 월1회 한해 사용료 감면) -입주기간(1년,1회 연장 가능) -운영대행 규정(공정문화재단 명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슬발예술마을 창작공예방 운영 조례	-업무 및 가능 -운영 및 관리 -위탁계약의 해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사업 내용 -입주자가 선발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장:부구청장, 위원: 5급 이상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가 등)

성인지적 규정 반영 X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 있음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05

»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위원 진입을 위한 발굴시스템 마련

심사위원들이 (...) 다 남성이었고 이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 분명히 여성예술가들이 있는데, 이걸 정말 고질적인 문제로 제가 2012년도부터 (경험해본 결과) 대부분 심사위원은 남성이예요. (...)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부산문화재단에서 돌아오는 답은 여성심사위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성심사위원을 발굴하는 역할도 (재단에서) 해라고 하고 싶어요.



예술창작공간 입주경험 여성예술가 추천 통한 여성 현장전문가 풀 확대

계속 입주해 있던 14팀 작가 중에 여성예술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경력 10년 이상 된 예술인 대부분이예요. 그 사람들한테 심사위원 한 번이라도 제출해봐라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심사를 좀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려는) 그런 노력은 정말 0%예요.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06

» 여성 대표성 제고



세대별 여성위원 대표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자격기준 마련 필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그 경력이 어디 직함이 있어야 되고 교수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획을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창작을 몇 번 해 어디에 참여했고 이런 기준을 (...) 주면은 되게 내가 거기에 부합이 되는구나 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 세부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주면은 아마 많은 여성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될 것 거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예술분야별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참여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심사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연은 몇 회 이상 했든지 교육 경력은 몇 년 이상 영화 같은 것은 뭐 몇 편을 만들었고 단편 같은 것 몇 편, 장편은 하든 이런 좀 세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를 심사위원 자격으로 인정한다면 (...)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아주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좀 풀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완화시켜 가지고.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07

» 위원회 풀 구축하는 주체기관의 관점 전환

- 

신진 심사위원 발굴 위한 유관기관의 관점 전환의 노력 필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그 경력이 어디 적합이 있어야 되고 교수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획을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창작을 몇 번 해 어디에 참여했고 이런 기준을 (...) 주면은 되게 내가 거기에 부합이 되는구나 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 세부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주면은 아마 많은 여성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될 것 거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초점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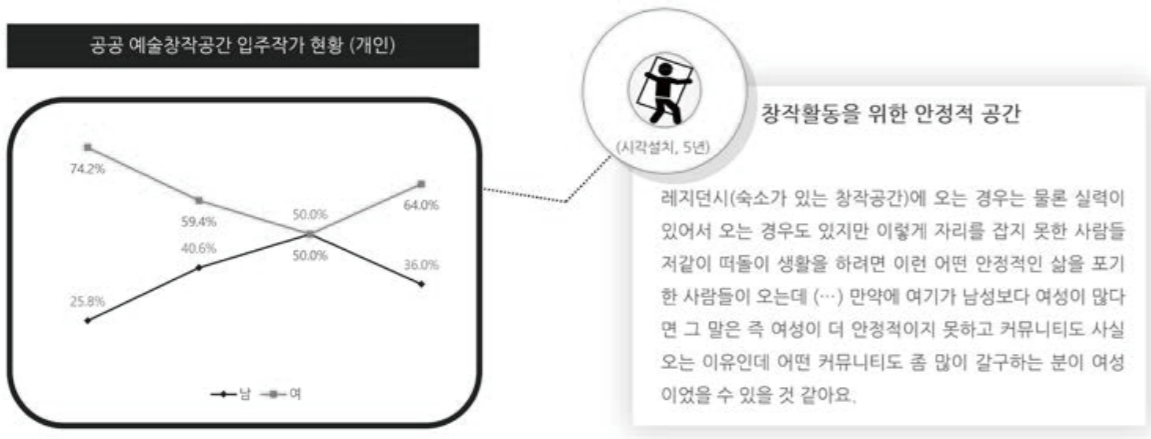
위원회 구성 시 신규위원 비율 배정 권고
 젊은 신임들도 들어가서 자기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할 수 있으려면 성별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신규위원을 해마다 갱신할 때마다 30~40% 넣어달라는 조건을 붙이면 문화 예술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피답 B)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08

» 창작공간 입주예술가들의 성별 현황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09

» 여성예술가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창작공간

- 

고정소득을 통한 생활 유지 한계로 인해 창작공간 활용
 사실은 제가 항상 마이너스로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지출하는 설치나 이렇게 작업에 쓰는 비용이 되게 많고 버는 액수는 적고 그래서 대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설치, 5년)
- 물적/인적 네트워크 부족을 채워주는 창작공간**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이라고 불리고 그 활동들이 작가영역에도 뚜렷하게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 반면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육아나 결혼이니 단절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아무것도 없이 저처럼 이렇게 타지에서 왔을 때나 그랬을 때에 막막하게 됐을 때에 이런 공공 창작공간들 이런 공고를 보고 원가의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영상+퍼포먼스, 13년)
- 


창작공간 입주를 통해 자신감 획득 및 커리어관리 가능
 이렇게 한 번 입주작가로 들어와 보니까 그 소속감이라고 해야 하나, ○○재단 소속으로 레지던시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안정적이고 그런 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이팅 하는 마음으로 협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시각설치, 5년)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0

» 입주예술가의 젠더 경험

- 

설치예술 분야에서의 여성예술 활동에 대한 편견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몸 쓰는 작업이 많잖아요. 그 몸 쓰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 뭔가 적합할 것이다 이러면서 많이 남성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만 봐도 이렇게 작가님들이 모여서 이제 예술설치 쪽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는데 모두 남성분들이세요. (...) 복장을 다 차려 입고 용접을 하려고 차려 입은 모습을 보더니 어떤 남성분이 와, 오, 너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하시더라고요.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그 얘기를 같은 조각을 하시는 다른 여성분에게 했더니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힘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시각설치, 5년)
- 

여성예술가에 대한 저평가 현상 존재
 옛날에 제가 늘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같이 그림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은 컬렉터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여자작가들은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공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 그 공백을 이겨내서 다음 작업까지 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 여자작가들은 거기서 먼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미술, 10년)

2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1

» 위원회 풀 구축하는 주체기관의 관점 전환



생애주기 고려한 <예술활동 증명> 적용 개선

예를 들어 임신, 출산, 자녀양육, 혹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로 인한 경력단절 후에는 <예술활동 증명> 관련하여 증명 여부를 사후에 인정받는 방식이 아닌, <기타 사항>으로 최소한의 증빙 절차에 의한 사전신고로 증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창작공간 운영 실무자들의 다양성 추구 및 성인지적 관점 중요

운영하는 주체와 그걸 기획하는 단위가 어떤 옛날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기획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과 형식을 좀 무너뜨리고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충분한 지원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을 좀 하면서 적극적인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2

	1 감만창의문화촌	2 홍티아트센터	3 또따또가	반딧불이
성별분리통계	X	X	X	X
만족도 조사	X	△	X	△
프로그램 내 성인지적 관점	X	X	X	O

4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3

» 감만창의문화촌



- 포스터 속 여성과 남성은 모두 청년
- 긴 머리, 치마 등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여성(빨간)과 남성(파란)의 옷 색깔은 전형적인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전반적으로 여성은 밝은 계열, 남성은 파란 계열의 이미지로 표현



- 여성 1인 이미지로 성별 대표성 배제
- 긴 머리, 분홍색 옷, 치마로 표현되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여성은 긴 머리, 치마로 표현되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탐구하거나 농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으로 표현(전문가는 남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

4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4

» 홍티아트센터



- 여성 1인 이미지로서 성별 대표성 배제
- 여성은 긴 머리, 분홍색 옷으로 표현되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노래하는 여성 예술가는 전형적인 성별고정관념(머리띠, 긴 머리, 분홍계열 옷과 구두)이 반영된 이미지로 표현,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구성

4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5

» 또띠또가



- 여성은 긴 머리, 분홍색 치마, 남성은 짧고 세련된 머리스타일, 파란색 옷으로 표현하여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남성이 여성을 리드하거나 남성이 무릎을 꿇고 청하고, 여성은 기뻐하는 이미지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반딧불이



- 여성은 긴 머리, 치마, 붉은색 계열, 남성은 짧은 머리, 파란색 계열 옷으로 표현되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
- 여성과 남성 모두 청년으로 해석 가능

5 창작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7

» 홍티아트센터

개요

2013년 설치된 독립 신축 2층 건물

교통편의성

외곽지대 공단 내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편은 아님

편의시설

임산부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구비

안전 및 보안

보안시설은 갈 길춰진 반면, 공단지역에 위치해 예술인들이 외곽지대에 대한 기본적 두려움을 느끼기도 함

5 창작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6

» 감만창의문화촌

개요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부산문화재단 건물 내에 4층을 사용

교통편의성

과거 초등학교 자리로, 다양한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

편의시설

임산부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구비
노후된 건물로 인해 화장실 개선이 필요

안전 및 보안

건물 노후 대비 보안상 태는 안전한 편
단, 잠금장치 및 방음은 취약함

5 창작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8

» 또띠또가

개요

부산시 중구 원도심 공간에 역사적 배경을 지닌 40계단 주변으로 24개의 건물을 임대하여 76개 공간 활용

교통편의성

24개 임대건물이 지하철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편

편의시설

주변 공영주차장 사용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고 기파른 내부계단을 통해 보행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동해야 함
전사공간 부족함 편

안전 및 보안

밤늦게 다니는 보행자들에 의해 쉽게 노출되는 공간이기에 여성 작업자들의 두려움 있음

5 창작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19

» 반딧불이



개요
빈집을 활용한 재생사업 여러 구에 흩어져 운영

교통편의성
김천마을 주변에 많이 입주하고 있어 도시 외곽에 있을 뿐 아니라,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재료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편

위치 자체가 이게 막 길을 나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져다주는 분들한테도 애매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작품) 규모가 작아져요. (...) 서양화는 공간이 좀 있어야 돼서 좁은데서 하는데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큰 작업실을, 대부분 작가들은 그림 그리시면 큰 작업실을 원하니까.

편의시설
창작공간 건물별로 사정이 다른 경사길이 많아 주차하기 힘들
리허설 공연장 별도 마련 필요

안전 및 보안
각각의 창작실이 흩어져 있으며, 건물 노후, CCTV 미설치, 외곽지대 위치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6 성평등한 창작 환경 분석

21

»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방안

성평등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경우는 입주작가들이 성평등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작가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서약서를 기본적으로 받고, 계약서 상에도 성희롱, 성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성인지관점 교육이나 워크숍, 창작공간 내 성폭력 발생했을 때, 고충처리를 한다. (...) 창작공간 역시 국가지원사업의 범위이기 때문에 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이 창작공간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희롱, 성폭력) 부분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맡겨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 부산문화재단의 창작공간 관리 지침에도 처리절차로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공적인 지원금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성교육, 성평등 교육 같은 거를 이수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끊임없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

6 성평등한 창작 환경 분석

20

» 부산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인식

항목	평균(n=1989)		t
	남성(n=829)	여성(n=1160)	
1) 예술계 내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51	2.31	5.906***
2) 예술활동 계약 시 성폭력 예방 안내가 잘 되어 있다.	2.48	2.26	6.732***
3) 문화예술계 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징계가 강화되었다.	2.46	2.20	8.147***
4) 예술계 성폭력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2.35	2.11	7.718***
5)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 등에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할당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2.44	2.24	6.333***
6) 예술계 내에서 단체 대표의 성별 비율은 동등한 편이다.	2.47	2.24	7.492***
7) 예술계 내에서 외모, 나이, 신체에 대한 칭찬이나 폄평이 종종 이루어진다.	2.47	2.66	-5.922***
8) 예술계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를 완성한 이후에 해결하도록 한다.	2.27	2.31	-1.408

원함미 외 (2021). 「2021년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원데이터 재분석

6 성평등한 창작 환경 분석

22

»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방안

여성창작공간의 필요성
안전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계 내에서 여성창작자들에 대해서 저평가나 성차별이나 기회의 공정성, 이런 거 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왜 여성 창작자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여성 창작공간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여성 창작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지 관점 갖춘 위원 발굴 및 해촉기준 마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심사위원의 경우도 성희롱, 성폭력 계약서를 맺고 있어요.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심사위원 기준에 연령 다양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 연령 다양화에 대한 심사기준, 선정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다양성 관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심사위원을 몇 퍼센트 정도 배치한다는 기준을 같이 고려하셨더라고요. (...)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력 심사위원 해촉근거 등 명시하는 것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토론문

2021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발표 관련 토론문

주유신 영산대학교 웹툰학과 교수

1.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모든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 과정에 양성 모두의 관점과 경험을 통합 반영해 성평등 실현
- 제도와 문화의 변화, 조직 재구조화, 자원의 재분배 등 포함
- 2002년부터 시작된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제도', '성인지 통계 구축'
- 정부 및 주요 조직과 위원회 등의 성별 대표성 제고
(고위직 여성 비율: 문체부 및 소속 기관 14.3, 공공기관 21.0, 협회 및 단체 26.6%)

2. 남녀 동수제(Gender Parity)

- 모든 시민은 성별에 상관없이 예술문화를 평등하고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문화민주주의 혹은 문화다양성에 근거
- 지금까지 문화예술 산업이 남성들에게 편중되고, 여성 창작자나 여성 서사는 배제하여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대안
- 타깃제는 쿼터제가 야기하는 게토화나 낙인을 피할 수 있고, 쿼터제보다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점
-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다양성 가치 실현,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제공

3.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조건

- 예비 예술인의 여성 비율이 높음
- 70%가 넘는 프리랜서들의 활동 조건에 사적, 인적 네트워크 영향력이 큼
- 문화예술 기업 10인 이하 사업장 91.6%
-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음
- 여성 일자리의 낮은 질(대학 전임교원 여성 비율은 낮지만 비전임교원 비율 높고, 영화 제작 현장 고소득 분야에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공공기관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낮은 여성 비율(2019년 39.1%)

4. 문화예술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 방안

-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의 민관 거버넌스 강화
- 문화예술계 성평등 지표 개발 및 성인지 통계 자료 구축
- 문화예술계 공공·민간 성평등 고용 및 임금 공시제 도입

- 문화예술계 경력 단절 여성 지원
- 문화예술계 성인지 향상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가이드라인 제작
-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단체,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 제고

5.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성인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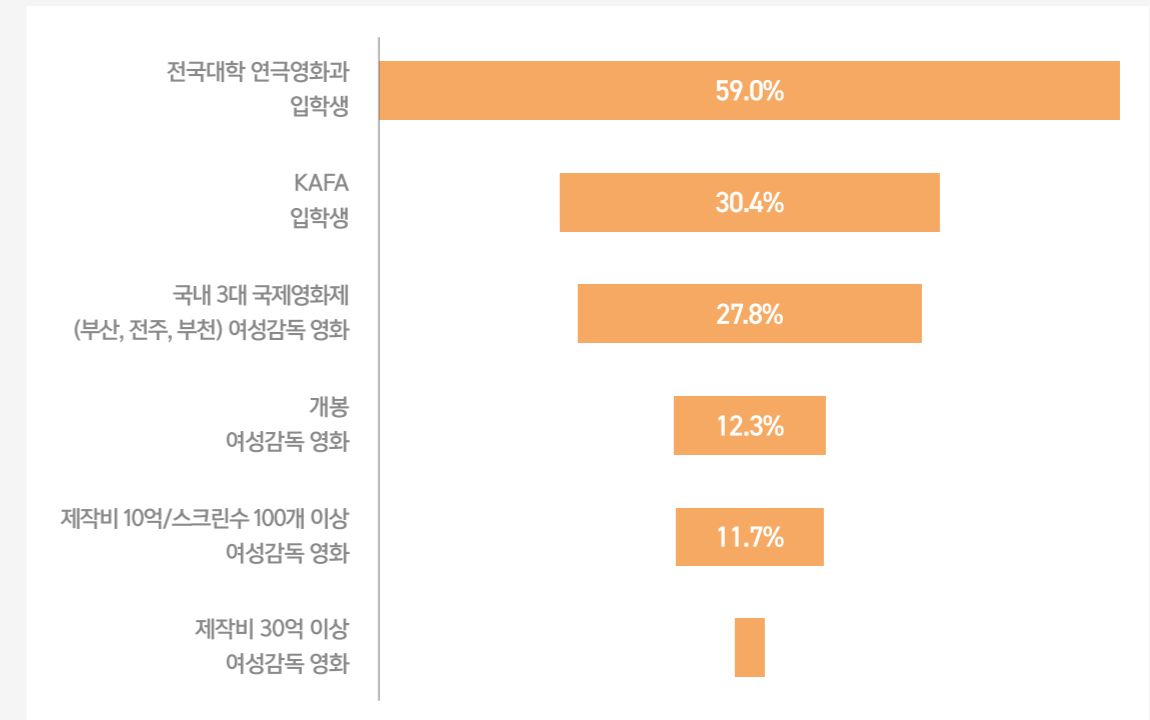
- 2017년 영화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한국영화 연감에서 시작
- 기존 영화산업 통계를 분석, 여성이 영화산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 성별 불균형이 얼마나 극심한지 파악하고, 영화산업의 성불균형 해소, 성평등 성취를 위한 연구조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역할
- 5년간 개봉된 총제작비 10억 이상·최대 스크린 수 100개 이상 상업영화,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와 다큐멘터리 포함 실질 개봉영화 대상/6개 핵심장작 직종 성비, 감독과 주연 성별에 따른 스크린과 관객 수, 성인지 관점의 캐릭터, 주요 국제영화제 감독 성비, 영진위 지원사업 선정작 성비 등 분석
- 온 스크린(on-screen)
 - 서사 진행의 중심 성별, 성별에 따른 스크린 위의 가시성, 성별에 따른 스타의 영화산업 영향력, 여성 주연 영화의 개봉 규모와 수익성 파악
 - 장르와 캐릭터: 범죄, 스릴러, 전쟁, 액션 등의 장르와, 남성 경찰, 검사, 조폭 등의 캐릭터가 지배적 / 여성 감독의 영화는 드라마 > 코미디 > 멜로 > 가족 > 판타지 / 특정 장르가 여성 감독과 주연 배제, 여성 서사가 다양한 장르에서 기획, 개발되지 못함
 - 감독의 성별과 흥행은 상관 관계가 적지만, 여성 주연 영화가 남성 주연 영화에 비해 평균 스크린 수와 관객수 모두 적음
 -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 남성의 구출과 구원에 의지 / 남성 집단의 구색 맞추기 / 남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역할 / 의나 본성으로서의 돌봄 / 일차원적 로맨스 대상 / 성애화된 자극에 이용 / 자기 서사 없는 범죄의 피해자 → 2019년 43%
- 오프 스크린(off-screen)
 - 감독, 제작자, 작가, 촬영, 프로듀서, 주연 등 핵심 창작 여성인력 파악
 - 여성 주연 > 프로듀서 > 작가 > 제작자 > 감독 > 촬영감독
 - 감독과 주연·서사의 성별 관계: 2018년 호주의 경우, 장편 영화에서 여성 주인공, 여성 서사 평균 30%, 남성 감독 영화의 경우 24%, 여성 감독 영화의 경우 74% / 한국의 경우 평균 34%, 남성 감독 28%, 여성 감독 70%
 - 감독과 핵심 창작인력의 성별 관계: 2018년 전체 개봉영화 중 3개 이상 직종에 여성 참여 작품 비율 14.3% / 여성 감독 상업영화 10편 중 6편(60%)의 핵심창작 인력 과반수가 여성
- 영진위 지원사업 선정작 여성 성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50%(지원금 35:65), 다큐 제작지원 55% (장편 지원금 27:73), 시나리오 개발지원 45%, 시나리오 사업화지원 27%
- 부산, 전주, 부천 3대 국제영화제: 10년간 여성감독 영화 평균 27.8% 상영
- 영화 제작의 결정권을 지닌 핵심 직종에 여성 비율 현저히 낮음
 - 장편상업영화에 유리천장 존재, 핵심 직종에서 여성 역할 모델 희소
 - 여성의 영화산업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 잦은 이직 요인

6. 벡델(Bechdel) 테스트와 포스터 테스트

- 벡델 테스트: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 2명 등장 / 서로 대화를 나누기 / 남성에 대한 것 이외의 대화 나누기 (2009~2018년 흥행 50위 벡델 테스트 통과 영화 평균 50%)
- 포스터 테스트: 포스터에 남성과 여성이 몇 명 등장/포스터에 등장한 남성과 여성의 크기와 배치



7. 영화계 경력 단계별 여성 비율



토론문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부산문화재단은 2019년 지역의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문화예술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책연구센터에 소속된 성평등문화증진 분과 정책위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문화증진 분과는 다른 정책 분과와 더불어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부산문화재단의 성평등 이행 과제를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투에서 성평등까지, 부산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여성폭력 예방에서부터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산문화예술계 과제를 살펴보고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한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부산문화재단의 성평등 정책 이행 점검 등을 토론했다.

2021년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진행한 부산광역시 문화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와 2021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주제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최 포럼에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는 공공 예술창작 공간에 대한 여러 각도의 성인지적 분석과 입주 작가 인터뷰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예술 창작 공간의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특히 공공 예술창작 공간 입주 작가들 중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한 점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창작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조직력과 네트워킹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공공 예술창작 공간이 여성에게는 네트워킹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폭력 및 안전 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민간에서 운영되는 예술창작 공간과 비교해 공공 예술창작 공간이 보다 더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창작 환경을 보장받으려는 여성 예술인의 욕구는 단지 신체적 위협으로서의 안전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 3조 2항에서처럼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3조 4항에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예술 창작 공간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서 시작하여 민간 예술창작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성예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지역 문화예술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2021년에 실시된 부산예술인 실태조사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경력과 소득, 성평등 측면에서의 부산 문화 예술계 평가 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며 이번 창작공간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의 조직, 네트워킹, 자원 배분, 심사 및 자문위 구성 등 예술활동 및 그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느꼈다. 또 부산문화재단

이 2018년 문화다양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지표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성주류화를 위한 조치 및 노력 정도에 대한 점검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라도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 혹은 성인지 확산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이는 지난해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과정이 아닐까 한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2021년 9월에 제정되어 2022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제4장을 통해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제 16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제 17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제 18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제 19조)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으며 제5장 제1절을 통해서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지역 차원에서는 경기도에서 2021년 7월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제 7090호)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성인지 문화'를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양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으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 조사 연구,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 등을 규정해놓았다.

여전히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문화예술 창작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 반복되고 있다. 부산 지역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센터를 설립하고, 문화재단 내 성평등 정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은 이러한 부산지역의 변화와 노력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예방에서부터 성평등 조성 가이드라인까지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검토와 변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될 때, 보다 구체적인 현실 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론문

안전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아래 자료는 '2021년 지역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 당시 자료임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창작공간 읽기

예술창작공간에는
왜 여성창작자들이 더 많은지 성인지
관점의 평가 필요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창작공간 읽기

예술창작공간은 다양성을 확대하는가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창작공간 읽기

예술창작공간은 창작자들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공간인가

예술창작공간 성평등 예술활동 지원

여성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공간 고려

- ➔ 기회가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성평등 창작활동 기회제공
- ➔ 여성창작자들의 경력 쌓기
- ➔ 여성창작자 협력형 프로젝트 지원

여성창작자들을 위한 공간 지원

창원에 여성 소통창작 공간 들어선다

이은주 | 승인 2020.05.07 16:53 | 댓글 0

정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선정
창업 비롯한 경제역량 강화 지원

창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최종 선정돼 5년간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은 중기부에서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사업기관을 선정, 최대 5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창원시와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책과 제도 개선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운영규정 개선

- ➔ 입주작가 선정 심의위원 성별 비율 및 여성 심사위원 대표성 키우기
- ➔ 계약시, 입주작가로서의 책무로서 성평등조건 명시
- ➔ 책임기관의 고충처리 의무 명시
- ➔ 창작공간별 성평등 약속문
- ➔ 지원사업에서 민간 레지던시 사업 공간 실태 파악

III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1. 추진 개요
2. 추진 결과
3. 주제발표
4. 토론문

Ⅲ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1. 추진 개요

포럼 명

-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 '문화예술과 커피도시 부산의 연결 가능성'

기 간

- 2021. 12. 7.(화) 15:00, 무명일기(부산시 영도구)
- 소규모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 병행

추진목적

- 부산지역 문화정책 의제 도출을 위한 공론장 운영
- 지역 문화거점으로서 소규모 공간들의 지속가능성 모색
- [장소성+문화+산업]이 결합하는 자생적 트렌드로서의 커피숍의 가치 조명
- 문화예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합을 위한 문화정책 제안 도출

참석대상

-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 문화 활동가 등

세부일정

구분	세부 내용
15:00 - 15:05	[개회인사]
15:05 - 15:25	[주제발표 1] '커피와 공간, 문화적 가능성에 대하여' - 이지훈(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15:25 - 15:45	[주제발표 2] '부산의 작은 역사: 커피' - 김만석(문화연구자)
15:25 - 15:45	[종합 토론] 좌 장: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토론자: - 윤성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일록(로컬콘텐츠기획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 전주연(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16:35 - 16:40	[폐회]

2. 추진 결과

주제발표1

- '커피와 공간, 문화적 가능성에 대하여'
 - 부산 커피숍과 문화예술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도시산업과 관련된 창조도시적 관점과, 지역 시민의 문화 창조-향유의 관점임.
 - 도시의 문화적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로 [비공식적인 문화 씬]이 강조되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커피숍 집중 필요
 - 코로나 팬데믹 등을 통해 로컬텍트(local-tact)가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소규모 거점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향후 부산 커피숍과 지역 예술인들의 협력에서 출발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파트너십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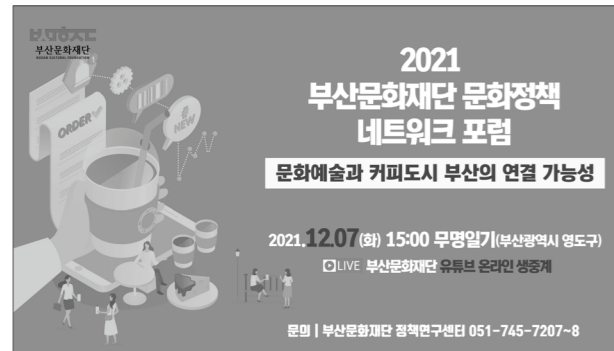
주제발표2

- '부산의 작은 역사: 커피'
 - 조선의 커피에 관한 기록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선교사들의 수입 품목에 커피의 기록 존재로 비추어 이미 커피는 다양한 형태로 조선 말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 향후 방대한 역사자료를 활용하여 로컬의 커피 역사에 대한 조명 필요

종합토론

- 전주연: 로컬 커피 산업 및 스페셜티커피산업과 문화예술에 대한 상호 이해 필요 부산만의 로컬 커피 특징인 스페셜티커피와 문화예술의 상호 성장 방법 모색
- 이일록: 커피와 문화예술에 대한 접점을 찾기 시작한 시점 도래, 스페셜티커피와 연계한 장기적 플랜과 단기적 액션 도모 필요
- 조정윤: 커피공간은 문화예술의 생산지이자, 시민 문화 향유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했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경우 발생, 향후 커피공간의 생활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정책 공론화가 필요함
- 윤성호: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한 연성적 사회 인프라로서의 커피공간의 중요성 발견, 문화플랫폼이자 소셜믹스공간으로서 커피공간의 기능 설정 및 지원 필요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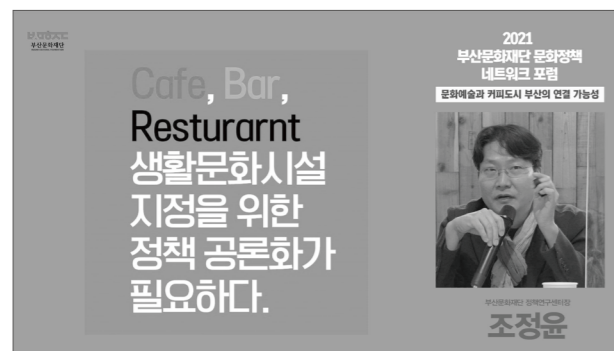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2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3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4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5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6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7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현장 8

3. 주제발표

커피와 공간, 문화적 가능성에 대하여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정책위원장

지난 7월, 부산시가 지역 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을 커피산업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커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4년간 180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육성을 통해 관광거점화를 계획한다. (커피를 좋아하는 발제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화정책의 시각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피산업 정책에 문화예술 정책이 더해지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커피>에 관한 이야기이니깐.

실제 부산에서 커피숍처럼 [장소성 + 문화 + 산업]이 결합하는 자발적, 자생적 트렌드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먼저 커피숍의 문화적 가능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안한다. 하나는 도시 산업(경제)과 연관된, 이른바 창조도시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지역 시민의 문화 창조-향유의 관점이다. 먼저 첫 번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1. 창조도시의 관점

문화의 활력과 도시의 성공은 함께 간다. 과거에는 도시의 성공(경제, 산업)이 문화의 융성을 불러왔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의 융성이 도시의 성공을 불러올 수 있다. 요컨대 「문화의 활력과 도시의 성공은 '공생', '공진화」한다. 문화와 산업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말하자면 문화정책을 '관계 횡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이스터런던, 2010년대 이후 베를린, 몬트리올, 오스틴(텍사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도시들에서는 문화가 산업을 이끌고, 인재를 유인하며, 투자를 이끌어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비공식적인 문화 씬> (informal cultural scenes)이었다.

<세계도시문화보고서>가 기존의 문화정책 보고서들과 달리 '비공식적' 문화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공식적 영역과 나란히, 대등한 평가영역으로 다루는 이유다(2012년 런던을 기반으로 설립된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4년마다 도시별 문화정책을 분석하는 <세계도시문화보고서> 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 문화영역'은 '관 주도'로 계획, 설립된 콘서트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말하고, '비공식 문화영역'은 카페, 식당, 바, 클럽, 레코드숍, 소규모 공연무대, 댄스홀, 거리축제, 야간유흥문화(nightlife)를 포괄한다.

과거에는 문화 인프라 논의가 공식 문화공간에 집중됐지만, 오늘날 문화정책은 <비공식적인 문화 씬>을 활성화하는 공간 마련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비공식 문화영역이 빚어내는 도시의 분위기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도시 경험에 큰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매력적인 장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며 빚어내는 창의적 에너지와 혁신적 시도들이다. 이때 비공식적인 문화영역은 도시에 문화적 경쟁력을 더하는 주요한 자원이다. 런던 시와 함께 이스트런던 조성을 지원한 '프루 애쉬비'(Pru Ashby, L&P)는 이곳에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몰려든 이유로 '낮은 임대료'와 함께, '자유로운(자연스러운) 교류와 혁신적 환경'을 마련해준 비공식 네트워크와 '소프트 인프라'(카페, 식당, 야간문화...)를 강조했다.

이 관점에서 부산 커피숍과 도시 성장의 공생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산 커피숍에서 단순히 산업(경제)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문화 씬>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굴, 독려할 때 부산 커피숍의 성장이 도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커피 산업정책과 문화정책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결국은 문화의 활력과 도시의 성공은 '공생', '공진화'하는 것이니까.

2. 시민 문화의 관점

그런데 커피숍이 활성화하는 <비공식적인 문화 씬>은 또한 지역 시민들에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문화 거점>의 측면을 생각해보자. 오늘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발전은 '관 주도', '기관 주도'로 계획, 설립된 문화시설만으로는 이끌어 내기 어렵다.

도시문화의 역동성(Dynamism)과 다양성(Diversity)은 비공식적 문화공간들을 통해 보강될 수 있다(역동성은 새로운 생각을 수용, 실험하고, 스스로 변화하며, 서로 다른 문화주체들이나 산업집단 사이에 협력체계를 만들며 도시 자생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성은 주류 / 비주류 문화, 여러 계층의 관객과 시장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통과 현대화 사이의 균형지점을 찾는 것, 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고유의 지역성을 유지하고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높이는 것, 이런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문화 공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 문화 공간들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 치유하거나, 세대별로 소외되는 계층들(고령층, 청소년층)의 정서적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문화정책의 현안은 각 지역에 '실핏줄'처럼 퍼져있어 문화적 풍경을 이루며, 주민들에게 색다른 도시 경험,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문화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원을 교육, 교통, 법률, 주택...과 같은 비문화 분야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교통+문화)도 이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커피숍은 이른바 '슬세권'(=근린생활) 문화시설, 문화거점의 잠재력이 있다. 이 개념은 또한 지난해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로컬-택트'(Local-tact) 정책과 연결된다. '로컬-택트'는 공식 (대형)문화시설의 '대면'(tact) 활동이나 온라인 '비대면'(non-tact) 활동과 구별되는 제3의 길로서, 지역=마을로 접근하는 소규모 (대면) 문화 활동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의 카페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고전적인 카페 기능(문화예술 '살롱' 전통)은 잘 알려졌지만, 오늘날 파리의 카페는 '마을 사랑방'의 역할뿐 아니라 토론·세미나('출판인 카페', '철학 카페'), 미술 전시, 연극 공연(문학협회와 연계), 음악 공연, 영화 상영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세분화, 특화된 곳이 많이 있다. 여기서 카페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문화 거점으로 작동한다.

3. 정책

앞서 말한 관점에서 정책을 몇 가지 구상해봤다. 핵심은 <커피숍과 예술인들의 결합>에 있고, 커피숍에서 이뤄지는 '전시·공연·강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지원은 비용 지원과 네트워킹(인력, 작품 중계) 지원으로 나뉜다. 정책 실행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문화 인프라, 즉 자발·자생적 문화 인프라인 커피숍과 함께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200~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정산 처리를 생략한다(행사 인증 사진으로 대체함).

1) 미술

- 좋은 사례로 <모모스>가 <부산커피> 포장지로 김종식 화가의 작품(<귀환동포> 1947)을 사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
- 커피숍은 부산 근현대 작가의 작품 복제본을 포장지로 활용하거나, 또는 액자로 전시할 수 있다.
 - : 부산 근현대 작가의 작품 복제본, 출력 제공
 - : 문화재단 홈페이지 샘플 게시. 커피숍이 샘플에서 선택, 신청함. 전시할 경우, 부산시 예산으로 고화질 출력, 액자만들어줌
 - * 작품 선정위원회, 디지털화(아카이빙)가 필요함
- 진품 미술작품(회화, 설치)의 대여(렌탈)도 고려할 수 있다. * 작가 동의와 보험 문제 협의 필요함

2) 영화 스틸 사진

- 부산 로케이션 영화의 경우, 로케이션 인근 커피숍에 무상 공급
- * 영화 선정위원회, 디지털화가 필요함 / * 부산영상위원회와 협업이 필요함

3) 독서, 인문학, 소공연

- 소규모 연극(1인극, 2인극, 3인극, 낭독극 ...)
- 솔로·듀오 트리오 음악 연주
- 강연비용, 공연비용 제공

4. 앞으로의 과제

이제 문화정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공식 / 비공식' 문화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함께 발전시켜 시민들의 문화적 삶과 도시의 성공을 연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 주체 간, 형식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체를 구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부산 커피숍과 지역 예술인들의 협력 정책은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숍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다듬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문화정책은 혁신과 실험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에게 '공식 / 비공식' 문화영역 간의 조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파트너십,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세대별 특징을 가진 주체들의 공동체, 지역성과 국제성의 균형, 전통과 현대성 간의 조화...와 같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 과제들은 이질적인 분야와 조직이 융·복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를 요구한다.

일단 부산 커피숍과 지역 예술인들의 협력에서 출발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논의하면 좋겠다. 가령 사적으로 운영되는 극장이나 공연을 공공기금(또는 공공시설·건물)이 지원하는 '혼합형 문화경제' 모델을 논의 주제로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문화공간'은 이미, 그 자체로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커피숍뿐 아니라, 민간 공연장, 소극장을 비롯해 <상업 문화공간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의 작은 역사: 커피

김만석 독립 연구자

※ 아래 원고는 기존 발표문을 일부 편집하였음. 전문은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에서 확인 가능함

1. 재생된 로컬이 도착한 곳

군산은 부산과 닮았다. 항구도시라서 그런 게 아니다. 역사적 자산을 '밀천' 삼아 도시의 활력과 재생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금강과 서해안을 끼고 거대한 '평야'와 그에 견줄 정도의 '폐허'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군산이니, 지정학적 조건도 제법 유사하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지만, 이 역사를 '낭만화'함으로써 동시대의 문제와 갈등적 역학을 은폐하고 엄폐하는 도시 필터링의 단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도 그러하다. 예컨대, 군산의 영화동은 성매매 집결지가 골목에 따라 늘어진 곳이었지만, 이곳이 '재생'될 때는 이곳의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삭제되어 있고, 그저 인근 점포에 달려 있는 네온사인인 '느낌'과 오랜 거주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해당 장소의 내력을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영화동의 이력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그곳을 '고착화'된 장소나 공간처럼 '감각'되게 만든다. 달리 말해, 도시의 역사를 관광의 대상으로 낭만화하면서, 다채로운 역사의 결을 사장시켜 특권적인 이미지에 도시(local)를 위계적으로 연결시킬 때, 궁극적으로 군산을 '내부 식민지'로 삼아 낭만만을 채취, 수탈하는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없지 않다. 낭만에 위배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할 따름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정동적 테크놀로지가 바로 음식이나 음식점 그리고 이를 데이터화하고 평가체계로 조직해 놓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다(물론 이 시스템은 음식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을 터전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해 이루어지는 별점 평가(혹은 테러)는 '친절함'을 기준으로 삼거나 '인심'의 강도(intense)와 맛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불명확한 '가치'에 따라 서열화하기 일쑤고 표준과 취향을 위계화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가게들은 '부재'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마치 군산의 영화동처럼 말이다. GIS에 등록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못할 때,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각 좌표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GIS에서는 이른 바 '덧글'과 '평가'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 좌표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즉, GIS는 사실 상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분위기와 느낌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정동적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로컬음식(집)을 부정적 '땀'이나 '짤'로 재현하거나 이른 바 지역의 '토산품'이나 '상징' 조형물에 대한 비하가 그 연장 선상에 있다.

로컬에 근거한 식재료로 상징 이미지나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거나 공적 자금의 낭비로 치부하는 조롱은 지자체의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대체로 로컬 조형물은 해당 지역의 주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지역민들이 조형물로 만들어진 농수산물에 아니라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기반이나 삶의 기반이 '하나'로 통합되어버린 지역에서의 상징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사실 상 슬픈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브랜드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군산의 경우, '떡방아와 친구들'과 같은 캐릭터를 통해 로컬

브랜딩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제작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캐릭터와 로컬 사이의 연관성이 없어 '군산'의 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캐릭터를 고안했던 군산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가 인문학창고 정담(구 군산세관 창고 건물)에서 판매했던 커피가 '고종'과 커피를 연결해 만든 '황제 커피'였다.

2. 부산Fusan에 도착한 커피를 위한 우회로 1

1900년 이전부터 조선에서 사전들이 간행된다. 대표적으로 《불한사전》(1869), 《한불^조·^단》(1880)처럼 불어와 체계화되지 않은 조선어 사이의 언어적 번역 그리고 문화적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연해주로 이주한 함경도 출신자의 말을 러시아로 기록하고 번역했던 《로한^조·^단》(1874)과 《시편 노한소사전》(1904) 그리고 《영한^조·^단》(1890)과 이를 증보한 《한영^조·^단》(1897 이후 1911년 증보) 등 영어로 기록, 번역된 사전이 그러하다. 조선어만으로 이루어진 사전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어(혹은 한어)는 각 언어나 문법적 기준을 경유해서 제시되지만, 경우에 따라 조선어에 대한 문법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본인, 특히 역관의 조선어 학습서로 만들어져, 1703년 이후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증보가 이루어진 《교린수지》도 사실 일종의 사전이기도 하다. 이 사전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언어학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당대 조선 사회의 풍속이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중략)

천주교와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조선어(한어)를 익히는 것은 포교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이른 바 한불사전이나 한영, 영한사전 모두 그 목적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어 후속 선교사들이 조선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중어 사전의 출간은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부담하는 '번역'의 세계였고, 서로의 말이 1:1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했다. 푸칠로가 만든 노한사전(1874)의 경우에는 함경도 이주자의 말을 근간으로 해 사전을 출간했던 이유가 청과 러시아의 국경분쟁 이후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조선인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진출이라는 제국주의적 욕망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전 출간 전후로 이루어진 갖은 국제적 분쟁과 전쟁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번역이 단순히 선교나 해당 사회의 이해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략)

3. 부산Fusan에 도착한 커피를 위한 우회로 2

한편, 19세기 후반은 조선사회가 외부와의 접촉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조선 사회에 알맞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실천의 시기이자 위기의 시기였다. 선교사들의 사전엔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던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기록되기도 했는데, 포도주가 대표적이었다. 포도는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 '안성' 지역에서 처음 재배되어 조선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처음 심을 때 포도주를 담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포도주는 커녕 포도나무도 널리 경험하기는 어려웠다. 1901년이 되어서야 콩베르 신부가 머스켓 종 모목 스무 그루가 안성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즉, 게일의 영한사전(1897)에 포도주가 등재되어 있는 것은 조선 바깥에서 제조된 술이 조선에 들어와 종교적 의례로 활용되었거나 자신들의 음용을 위해 들여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은 서구적인 것의 '번역'만을 기재한 것은 아니었다. '서학'과 '동학'이 등재되는 방식은 서구적인 것이 다양한 갈등 속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학 西學 SYE-HAK, -I. doctrine de l'ouest, c.a.d.la religion catholique — 한불사전
 서학 西 서학 學 배울 1. Western teaching 2. foreign doctrine. [See] 서교 — 한영사전

카톨릭에서는 “서양교리, 즉 카톨릭 종교”로 번역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1.서양의 가르침 2. 외국 교리”로 ‘서학’을 번역하고 있는데, 신유박해(1801) 이후 공식적으로 포교가 어려워진 카톨릭에서는 서학과 서교의 구분 없이 서학을 ‘카톨릭의 교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의 사전에서는 서양의 지식 체계와 종교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선교활동이 교육(의료)과 포교라는 두 가지 활동으로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부산에서 기독교의 선교활동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성경반포에서 시작해 의료, 교육으로 이어졌음을 볼 때, ‘서학’은 종교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라는 뉘앙스와 연관되어 있었다.

커피도 이런 사정과 분리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청나라 연행의 과정에서 사신들이 커피 맛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고영(『카스테라와 카스텔라 사이』, 포도원, 2019)에 따르면, 청나라에서 조선의 미식가가 맛본 와인, 카스텔라 등의 다양한 식문화를 19세기 초반부터 이미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연행과 왜관은 이른 바 외국음식이 경험되는 조건이었다). 조선의 지배계층들엔 커피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고 특히 카톨릭 선교사들로 인해 당대 일반에게도 경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카톨릭 선교사에 의하면,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지만, 선교본부(홍콩) 측에 지속적으로 음식이나 각종 예배를 위한 물건들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속에 이미 커피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현범, 「철종 대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활동과 일상생활」, <교회사연구>19집, 2002에서 재인용>

서한일자	수신인	반입 요청 물품(성물, 성사 용품, 서적 일용품 및 선교자금)
1861. 3. 6.	리브와	“랑드르 신부와 조안노 신부 편에 보내 달라.” - 백포도주와 적포도주 각 50병씩 2통, 코냑 4다스, 커피 40리브르, 흑설탕 100리브르 “돈은 필요없다. 충분하다.”
1861. 9. 30.	리브와	“돈은 보내지 말라.” - 미사용 포도주 50병짜리 2~3통, 코냑 3상자, 커피 50리브르, 설탕 50리브르
1863. 11. 24.	리브와	“당신이 올해 책값을 많이 올렸다. 좀 낮추도록 해 달라.” - 편지지 4련(rame : 500장 묶음), 커피 50 catis(paquet), 설탕 50 catis, 병마개 100개, 코냑 3다스, 초콜릿 30리브르, 질 좋은 포도주 4다스, 미사용 포도주 50병짜리 3궤짝, 요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1,200 피아스터

베르뇌 주교가 프랑스에 있었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각종 미사용 도구와 일상용품,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다. 커피는 리브르 단위(100리브르는 50kg)로 기록되거나 catis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물건들이 조선에 반입되는 경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청나라를 오가는 역관들 편에 부탁하는 경우와 서해안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코스 가 있었다. 선교는 철종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선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여러 감시를 피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1866년 2월 하순에 일어난 병인교난으로 선교사 9명이 체포되어 참수당하고, 3명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여온 커피는 볼 수 없게 된다. 커피에 대한 요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조선 내에서 커피를 구해 음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점점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다.(중략)

外部所管東萊監理署宴會費를 豫算外支出請議書 第五百五十八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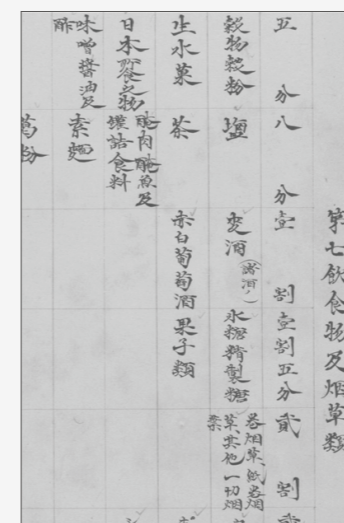
本月十五日에 外部大臣署理第六十四號照會를 接準호은즉 內開에 宮內府照會內開에 接東萊監理 李明翔 報告內開에 府電飭을 奉準호와 本月一日下午八點鐘에 與德國親王으로 約以宴會호야 備設宴需이다가 同日下午二點鐘에 自德艦으로 有書호되 言其封親王씨시마귀의 訃音이 電到호야 不能赴會이다이옵기 更以三日下午八點鐘으로 約會矣러니 赴期에 德國親王及艦長以下十二人合十三人이 齊到本署호야 十一點鐘에 還艦이온바 前設宴費는 以本署交接費中으로 僅僅彌縫이옵고 後設宴費는 因無措劃호야 稅務司의 二百元을 費用호고 八十元은 西洋料理家의 未授價先用호고 一百五十六元二十三錢은 自署中으로 私貸以用이옵고 茲에 左開報告호오니 查照호신 後 該錢을 某樣公錢中 海關으로 措劃支出호심을 望호단等因 準此호와 該費明細書를 現已入稟호은즉 此費磨鍊을 由外部措處케 호라신 旨意를 奉호와 宴會費明細書를 伴交호고 茲用佈明호오니 照亮호시고 準此措劃호심을 爲要等因이라 此를 準호와 該費明細書를 仍將原件호야 茲에 照會호오니 照亮호오서 該宴費四百三十六元二十三錢을 迅行支撥호야 以便作覆케 호심을 爲要이온바 查該所需費額이 係是臨時挪用이온즉 不可不準數劃動이기로 別紙調書를 從호야 預備金中支出호므로 會議에 提出事.

豫備金支出調書

一金四百三十六元二十三錢 東萊監理署宴會費

德國親王宴接費明細書

<“조선국해관세목”(1883) 수입품목>



<광고, “한성신문”> 1901. 6. 20.>



위 내용은 의정부찬정대신 민영기가 의정부참정 이호준에게 보낸 동래부에 방문한 독일인들의 연회에 쓴 내역서를 보내면서 요청한 비용 청구이다. 비스마르크의 죽음(1898. 7. 30)으로 8월 1일 예정되어 있었던 연회가 3일 저녁 8시에 열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연회에서 사용된 요리와 도구, 인력에 사용된 비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행정서류이다. 이 내역에 따르면 조선의 전통 음식과 서양의 음식이 혼재되어 있고 전통 상차림과 서양식 테이블 세팅을 위한 도구가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東萊監理 李明翔”(이명상은 이 해에 6월 23일에 고종으로부터 동래부윤이자 동래감리를 동시에 임명받는다)의 주재로 이루어진 연회는 독일인(워르터 花爾德)의 “금성”(나주) 광산 채굴권에 대한 독촉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에 ‘함선’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데서, 이는 단순한 사안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커피는 철도부설과 광산채굴권을 둘러싼 독일과 영국의 조선의 압박의 한 가운데서, 맛을 냈을 것이다.

4. 토론문

스페셜티커피 산업의 플레이어로의 관점 커피와 카페, 문화 예술의 동반 성장

전주연 모모스커피 이사,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1. 로컬 커피 산업 및 스페셜티커피에 대한 이해와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 필요

- 일반 커머셜 커피와 스페셜티커피의 차이(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가치체인)
- 전 세계 커피 생산 비중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고품질 커피 생산국으로 자리 매김한 코스타리카
- 스페셜티커피에 대한 문화 예술적 해석 필요
- 협력 및 교류: 부산도서관-월드바리스타챔피언
(대표 도서관 홍보 대사로서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 도서관 연계 스페셜티커피 특강)
- 부산 문화 재단과 로컬 스페셜티커피 기업 연계(ESC 사업 등)

2. 산업, 경제 성장이 아닌 문화, 관광으로서 스페셜티커피와 공간의 성장. 그로 인한 확장성.

- 박물관과는 달리 열린마음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방문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커피, 카페
- 해운대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작게라도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지역작가, 지역의 좋은 이야기, 지역을 넘어 한국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매개 역할.
-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협업, 전시
예) 모모스커피 영도 공간 유리작가 이재경, 가구 디자인 문승지(팀바이럴스) 작가 등
예) 패키지디자인
예) 해녀의 부엌, 각 산업에 대한 이해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예술 접목
- 카페 공간에서의 공연, 전시를 넘어 시,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커피, 식음료 관련 전시 오픈

3. 부산의 커피, 카페 문화는 무엇인가? 공간의 의미를 넘어 브랜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이 아닌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위한 문화 예술적 해석(커피 뿐 만이 아닌 요식업 전체)

커피와 문화예술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문화기획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두 영역의 접합

이일록 로컬콘텐츠기획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1.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고민의 지점들(2020, 2021)

- 모모스커피와 전주연 바리스타(2019 월드 챔피언)를 옆에서 지켜본 소감
- 실행과 결과물: 금정북페스티벌, 부산 블렌드(김종식 화백, 1947 귀환동포 연계), 부산도서관 홍보대사, 한 아세안 강의 등
- 사람들이 모이는 곳 / 전주연: 서울(연남장, 트래바리 등등), 인스타 팔로우 4.6만, 셀럽
→ 부산 커피, 스페셜티 커피, 커피 공간들

2. 커피와 문화예술은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 커피, 부산커피 브랜드: 지난 10년간 성장,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지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황
- 문화예술이 커피를 바라보는 지점: 커피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스페셜티 커피와 커피벨트, 공정 생태계 등
- 모모스커피, 블랙업커피 같은 로컬 기업에 대한 성과 스토리와 이해가 필요
→ 서로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지에 고민을 시작한 상황, 혹은 매개의 필요성

3. 이지훈 박사의 발제에서의 착안점

- <비공식적인 문화 씬>(informal cultural scenes):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논의 / 사적 영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 필요(무리하게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 필요는 없음, ESG 경영 사례의 예)
- 세대별로 소외되는 계층들(고령층, 청소년층)의 정서적 재건에 도움

4. 김만석 평론가의 발제에서의 착안점

5. 문화예술과 커피의 접합점은 과연 어디인가

- 장기적 플랜과 단기적 액션이 필요

장기적 플랜의 영역	단기적 액션의 영역
1. 커피 벨트, 커피 산지에 대한 이해 - 오리지널리티의 공간 - 커피→교류(레지던스)→국가간 이해 ※아이러니의 공간 : 생산과 소비의 비대칭 2. 커피와 문화예술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화 - 전주연 바리스타 : 축제 홍보대상 등 - 부산의 문화예술기관과 로컬 기업(브랜드) 연계	1. 물량장을 활용한 커피 축제 발신 - 현재에도 진행중이지만 커피 중심으로 진행 - 지역 작가들 연계 작업 - 바지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 지역 커피 공간 + 문화예술 연계 - 커피신을 노출할 때 함께 진행 - 기획사업 형태 : 프로그램 매칭 등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과
지역사회보호전략에 대한 상상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Coffee,
Cafe,
Culture District

카페는 생활문화시설이자,
문화관광의 자원이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

포르토, 카페 마제스틱



에딘버러, 엘리펀트 하우스



파리 몽파르나스, 카페 셀렉트



#런던 노팅힐, 노팅힐 북숍



#요코하마, 아카렌가 스퀘어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Cafe, Bar,
Resturarnrnt
생활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정책 공론화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과 지역사회보호전략에 대한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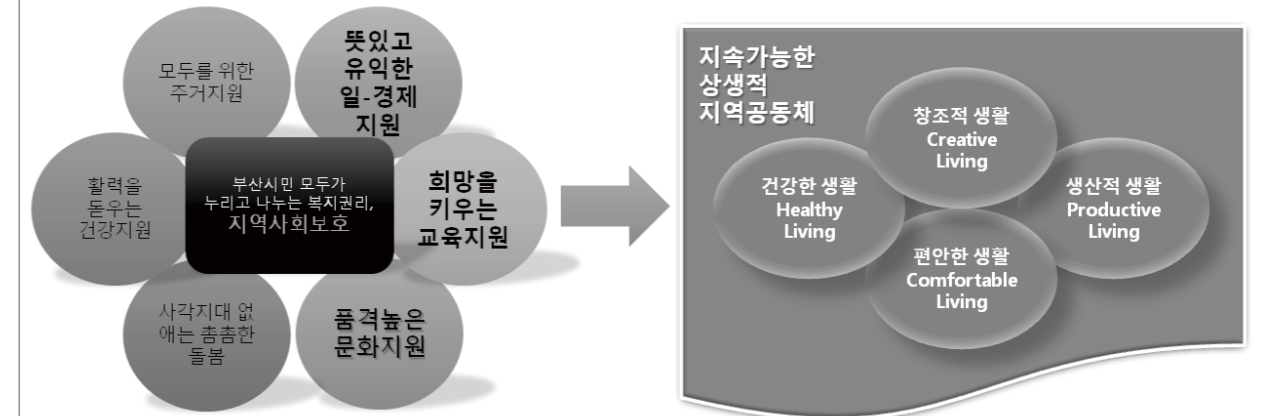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원고는 기존 발표문을 일부 편집하였음. 전문은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에서 확인 가능함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과
지역사회보호전략에
대한 상상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지역사회보호전략의 비전과 사명 : 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의 기능적 가능성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대질문.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평화로운 마을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보살핌(돌봄)을 나누고
건강을 유지하여
튼튼한 생활의 토대 위에서
가치로운 일을 하며
질 높은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는
부산 시민의 삶(생활)"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정의들 definitions

- **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통합돌봄)**
 -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사회공동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거주민을 보호한다.
 1.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함
 2.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소셜믹스) 서로를 돌보아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킴.
- **지역사회**
 - 근린지역사회를 이룸. 근린지역사회는 그 속에 속한 구성원이 인지하고 심리적인 소속감을 느끼는 물리적, 지리적, 관계적, 심리적 공간을 말함.
 - 1차적 공간(space system 1)은 물리적, 지리적 공간
 - 2차적 공간(space system 2)은 관계적, 심리적 공간
 - 여기서, 1차와 2차로 구분하나 중요성을 서열적으로 따지지 않음.
- **지역사회공동체**
 - 지역사회구성원이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와 구조를 가지고 모인 집합체
- **소셜믹스(Social-Mix)**
 - 근린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사회적 취약계층**
 - 사회구조적 혹은 개인적 원인으로 인해 기본적 욕구가 결핍하여 파생한 여러 생활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사람들.
- **거주민**
 -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
 - 거주시설 내 생활인 등등 포함
 - 연결 상태를 고려하지 않음.
 - 향후 자연 생태계의 모든 존재로 확대
- **보호**
 - 기본 욕구 충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충족상태로 변화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지역사회보호전략이 추구하는 6 변화와 커피숍의 기능 상상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을 위한 변화

1 취약계층의 변화 능동, 시민권, 시민성, 창의성, 자립, 자율 <- 수동, 시혜, 고립	4 공공기관의 변화 개방성, 협력주도, 선제적 서비스 체계 <- 폐쇄적 전문화, 관료성, 낡은 권위구조
2 주민의 변화 이익-상생, 시민성, 포용, 창의성, 자율 <- 무관심, 하위집단권력, 참여스트레스	5 민간기관의 변화 개방성, 협력주도, 지역형 서비스 체계 <- 폐쇄적 전문화, 분절, 중복
3 마을의 변화 통합, 포용, 문화다양성, 소셜믹스 <- 분절, 배제, 낮은 수준의 사회인프라	6 기업의 변화 지속가능성, 사회적 결속, 지역건인 <- 독단적 영리추구, 독자생존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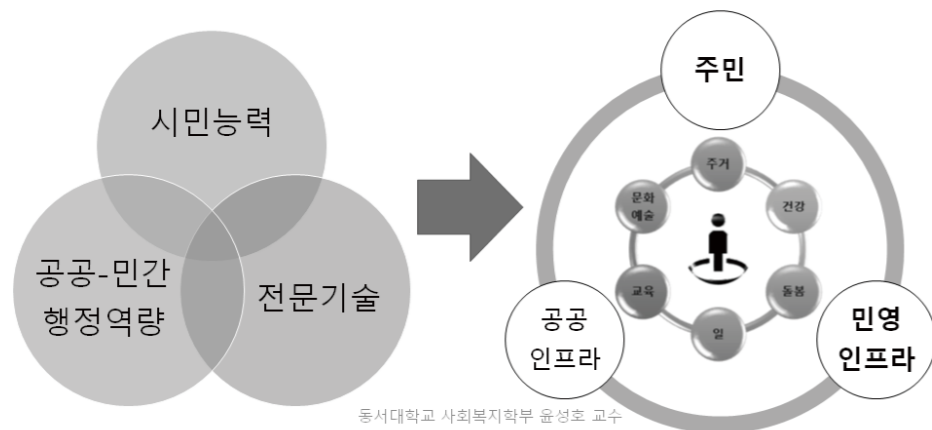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2

-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사회의 질(품격) 제고
 - 사회적 인프라
 - 경성적 사회인프라 hard social-infrastructure
 - 도시 공간에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 연성적 사회인프라 soft social-infrastructure
 - 지역사회에 시민 간의 우애, 협력, 호혜, 상생 관계를 만들기 위한 관계 구조
 - 사회의 질(품격)은 시민의 삶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사회의 질(품격)을 높여야 함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지역사회보호 전략의 성격 제언 1

- 시민의 온전한 삶을 위해 시민능력과 전문적 기술, 공공-민간행정역량을 혼합하는 기능적 민주주의 사회 구성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3

- 소셜믹스 공간(Social Mix Space)으로서 지역사회 구성
 - 모든 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사회로 재구성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지역사회
 - 느슨하고 자유로우며 서로 살피는 공간
 -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즐기고 어우러지는 공간
- 지역의 배제성을 저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4

- 지역단위를 토대로 다양성과 합리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모델 도출 필요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전략의 기초. 인간의 욕구 구분

- 위계적 욕구
 - 생리 → 안전 → 소속과 애정 → 존중 → 자기실현
- 생활필수품 욕구
 - {소득, 소비, 자산, 건강, 교육, 일, 사회관계, 정치, 문화영위, 환경}
- 존재론적 욕구
 - 신체유지 및 발달 - 심리정서 - 지적계발 - 사회관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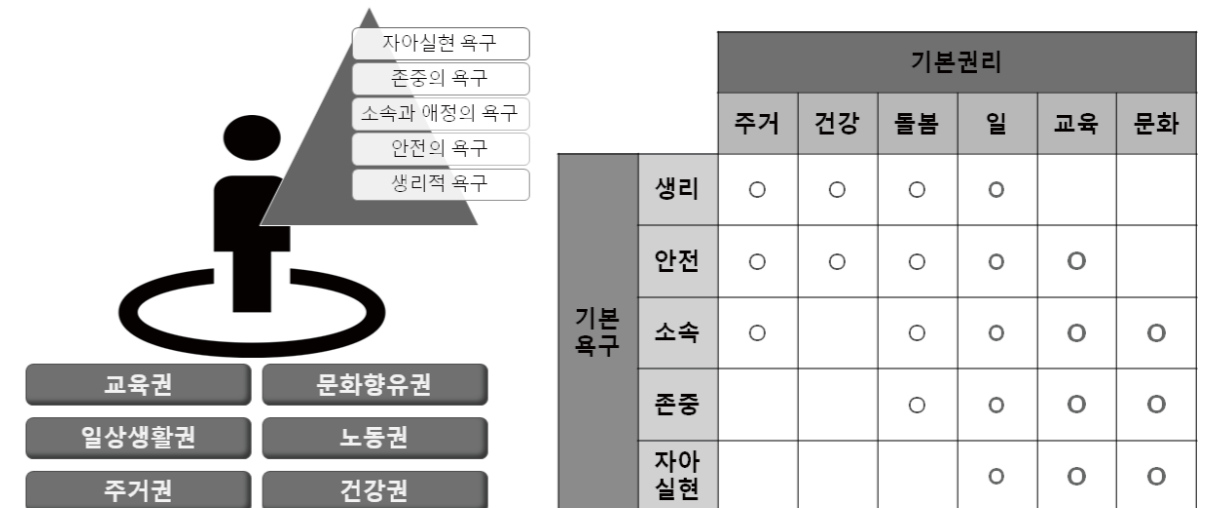
지역사회보호전략의 성격 제언 5

- 인간의 욕구-권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변화전략
 - 사업대상, 참여자, 이해관계자 모두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가 있는 존재임을 수용
 - 인간의 기본 욕구-권리로부터 상생하는 지속성을 실현하는 전략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전략의 기초. 인간의 기본욕구와 기본권리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문화플랫폼으로서 커피숍은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참고자료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커피숍과 지역사회복지

- 적어도 부산의 커피숍은 ESG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 “비공식적인 문화 썬” : 다종교류의 장의 가능성
- 예술생활과 생활정치의 거점의 가능성
-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의 가능성
- “지극히 사적 영역이 보장된 공적 공간”으로서 커피숍
-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익에 기여하는 커피숍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커뮤니티 카페 “소네”



- 출처: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방안” 보고서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예시)

영역	범주	지표
지역성	원주민지원(3)	원주민의 거주성 확보, 원주민 중심의 계획, 원주민 의견 청취
	역사문화성(12)	역사적 건축물 및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 온라인을 통한 역사 문화 홍보, 전통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및 설계, 전통 가로 및 광장의 재활성화, 문화재 계승과 전수,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문화재를 활용한 단지 계획,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박물관 전시관 건립, 주거지 전체를 역사문화 보존 마을로 지정 및 관리
	지역특성반영(7)	지역 정체성 및 이미지 표현,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부공간 구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 기존 근린지구 재생, 지역 맥락 반영, 가로 체계로서 골목길 유지
공동체성	주민참여(5)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커뮤니티 조직 구축, 주민행사 참여 및 개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주민참여 디자인 및 설계
	사회통합(3)	다양한 계층의 통합, 계층간 세대간 교류 여건 제공, 다양한 계층의 참여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9)	커뮤니티 시설과 보행로 연계 배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커뮤니티 시설의 외부 공유, 다양한 커뮤니티 종류 및 비율, 주민참여공간, 커뮤니티 시설 이용 편의성, 공원 및 광장의 설치, 커뮤니티 시설의 접근성, 커뮤니티 시설의 인터넷제공
유기체성	커뮤니티 활동 및 프로그램(2)	커뮤니티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지역 문화 및 프로그램 확충
	고용(5)	커뮤니티 내 고용 기회 제공, 직업 및 교육 프로그램, 빈곤과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실업률, 문화재 가치 및 지식관리인으로서 노인계층 활동 및 고용
	자족성(5)	커뮤니티 유지에 위한 재정 지원, 개발 유보지 확보, 마스터 플랜에 기초한 단계적 개발, 용도의 다양성, 복합개발
	안전 및 편의성(9)	범죄예방 디자인, 지하주차장 안전 확보, 보행 안전 확보, CCTV 설치, 범죄율, 차량 및 외부인 통제, 외부생활소음, 친환경 주차시스템 대중 교통의 접근성
	기반시설 및 서비스(6)	주민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 의사수, 교육달성 수준, 복지예산 비율, 사회복지시설비율
주거실태	다양한 주택 유형,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 주택건설용지 혼합, 이주율, 주택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절 주거 공급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IV

2021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되돌아보기

감사합니다.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성호 교수

IV 2021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되돌아보기

2021년 정책위원회 성과와 전망

이지훈 정책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올해도 기승을 부렸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문화예술 분야 또한 힘들었다. 하지만 부산 문화예술계는 나름대로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한해를 보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와 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정책위원회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 기획하는 과제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반면, 올해는 상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책위원회 활동은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영역의 분과들은 각자 영역의 안건을 상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그 결실은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되고, 또 자료집으로 묶여 나오게 됐다.

코로나 사태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문화예술계는 온라인 영상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책위원회 포럼은 소규모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됐고, 부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인 '컬처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정책위원회 활동의 아카이빙 관점에서나, 시민들의 참여 관점에서나 모두에게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을 것 같다. 올해 정책연구센터가 제안한 [문화예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라는 의제와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의제는 정책위원회와 함께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와 동시에 구체화되고 정제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할 것은 '문화예술공간' 의제다. 이 문제는 다각도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령 예술창작공간의 관점에서, 또 온라인 플랫폼(또는 온라인 공연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로컬-택트'(근린 생활공간)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로컬-택트'의 경우는 문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문화예술과 커피도시 부산의 연결 가능성]에서 제안한 의제를 심화하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 한해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약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점에서 문화 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것이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와 정책위원회의 건투를 기원하고, 다짐한다.

memo

Horizontal lines for memo notes.

